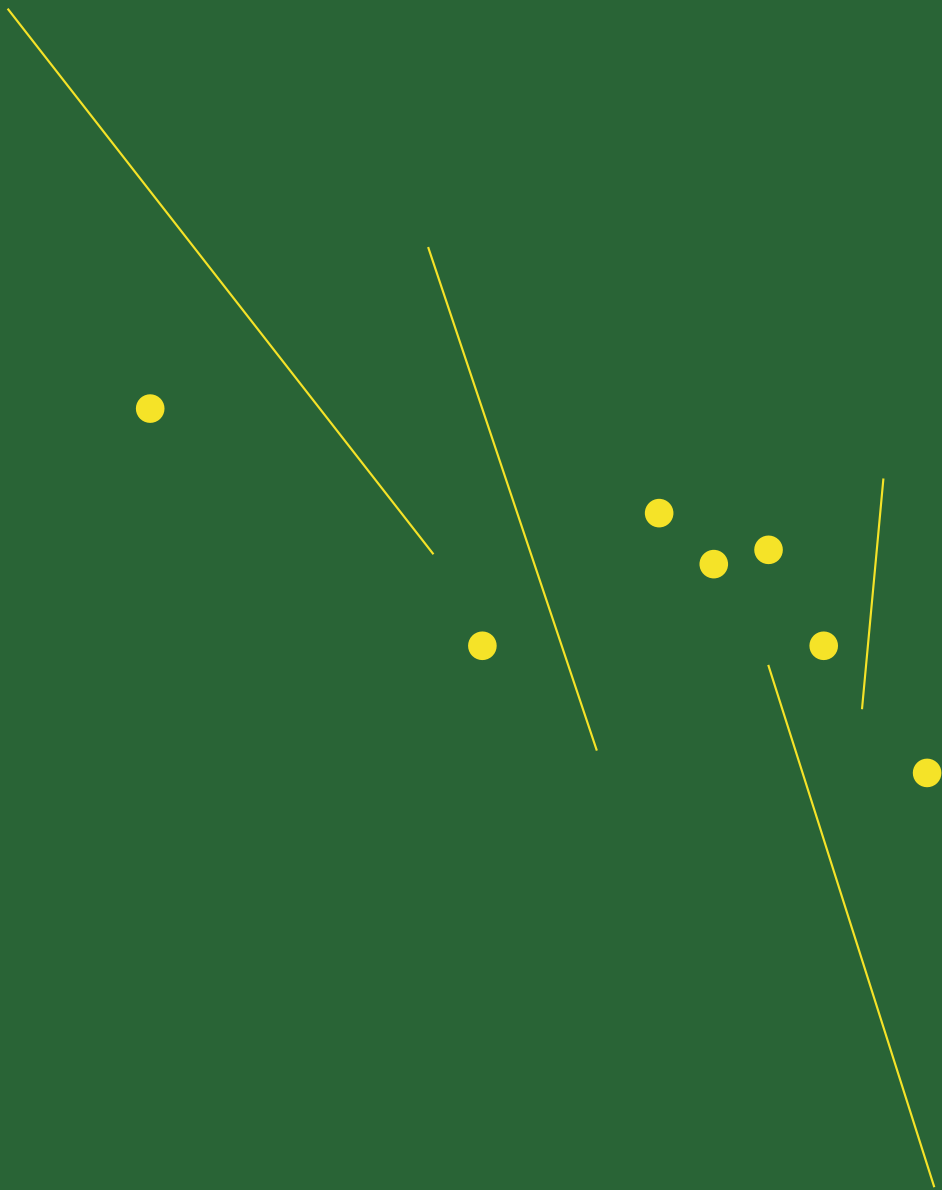


서울, 예술치유를 상상하다



2019
서울예술치유 네트워크 콜로키움
결과자료집

서울, 예술치유를 상상하다

2019

서울예술치유 네트워크 콜로키움
결과자료집

목차

03	들어가며
07	1차 콜로키움 예술경험 과정이 중심이 되는 치유
35	2차 콜로키움 정신건강과 예술치유
69	3차 콜로키움 공동체로 살아가기
101	4차 콜로키움 사회적 트라우마와 예술치유
137	에필로그 서울예술치유 네트워크 운영단 최종간담회

들어가며

들어가며

예술을 통한 시민의 삶과 사회 치유를 목표로 2010년에 개관한 서울예술치유허브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치유 전문공간입니다. 서울예술치유허브는 10여년의 기간 동안 공간에 입주한 306명의 예술가와 함께 보호관찰 청소년, 한부모, 콜센터상담원, 독거어르신 등을 만나면서 서울시민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서로 소통하며, 스며들면서 마음의 위기를 회복하고 삶의 균형을 찾고자 힘을 다해왔습니다.

서울예술치유허브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또 다른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예술치유의 현재를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콜로키움을 운영하였습니다. 서울예술치유허브가 추구해야할 예술치유의 방향성, 핵심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예술치유의 생생한 현장사례를 만나보고, 나아가서 정신의학, 심리학, 공동체, 트라우마 등 다른 치유분야에서 정신건강과 치유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의 통섭 및 협력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예술치유, 정신의학, 심리학, 공동체 등 각기 다른 전달체계로 이루어져 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시너지를 발휘하려면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지 그 간 논의가 거의 전무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영역의 전문가가 만나 생각을 공유하는 이번 콜로키움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1차 콜로키움 “예술경험 과정이 중심이 되는 치유”에서는 현장 사례를 통해 다른 치유영역과는 차별화되는 “예술치유의 방향성”, “치유활동에서의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치유활동 영역에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예술가들이 치유대상자를 만나면서 고려해야할 점까지 다루고자 했습니다. 2차 콜로키움

4

5

“정신건강과 예술치유”에서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은 무엇이며, 정신의학, 심리학 부문과 예술치유 간의 협력가능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했습니다. 3차 콜로키움 “공동체로 살아가기”에서는 공동체적인 삶의 치유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예술이 공동체 구성원의 정서적 치유와 회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했습니다. 4차 콜로키움 “사회적 트라우마와 예술치유”에서는 예술가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실질적인 논의를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콜로키움 담론집은 준비된 원고를 묶기 보다는 전문패널들의 발제와 청중의 질의응답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녹취하여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한 편의 영상과 같이 토론의 흐름과 심화되는 논의 과정까지도 독자가 깊이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치유와 치료의 개념구별이라는 끝없는 논의는 차치하고, 4번의 콜로키움에서는 현장사례를 통해 인접 영역과의 예술치유의 확장가능성을 상상해보고, 치유대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공통적인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콜로키움 담론집을 통해 예술가, 예술치료사, 심리학계, 의학계 등 치유영역의 전문가들이 예술치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넓히고,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논의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4차 콜로키움의 장은정 선생님의 발제 중 인상적인 글귀로 서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서로 용기를 내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같이의 가치’입니다”

서울문화재단 공간기획2팀

1차 콜로키움

예술경험 과정이
중심이 되는 치유

6

2019. 09. 20. (금) 14:30-18:00
서울예술치유허브 4층 스페이스 나눔

모더레이터

박은선(명지대학교 예술심리치료학과 교수)

발제자

김미영(무용치료사), 정은혜(미술치료사/화가)

제환정(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객원교수)

토론자

김찬호(성공회대학교 교수), 김현주(A.C.클리나멘 대표)

노경애(아트엘 대표), 이성재(똥자루무용단 대표)

홍혜전(홍댄스컴퍼니 대표)

김수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예술치유허브를 운영하는 서울문화재단 공간기획2팀장 김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서울, 예술치유를 상상하다'라는 이름으로 예술치유 콜로키움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서울예술치유허브는 2010년에 개관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306명의 입주 작가와 10여 년의 기간 동안 다양한 치유헌동을 하고 있어요. 다시 10년을 준비하는 시기를 앞두고, 4회로 구성된 콜로키움을 준비했습니다. 서울예술치유허브가 추구하는 예술치유의 방향성, 핵심 가치를 되짚어보며 예술치유 영역과 협력할 수 있는 정신건강, 공동체, 사회, 의학, 심리 등의 분야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술경험 과정이 중심이 되는 치유'입니다. 치유 예술가의 정체성, 치유대상자들을 만나며 고민해야 하는 지점까지 논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발제, 패널과 토론, 이후 플로어와 함께 하는 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은선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의 모더레이터를 맡은 박은선입니다. 4회에 걸친 콜로키움 동안 예술치유는 어떻게 진행되고, 그 일을 하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알아가며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발제자는 김미영 선생님입니다.



김미영

한양대학교 무용학 박사

KDTA공인 무용동작치료사/무용동작심리상담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모션 & 이모션 대표

전문무용수지원센터 Dance for PD 강사

전) 삼성서울병원 정신병동 무용치료사

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정신건강병원 무용치료사



10

환자가 아닌 무용수다

파킨슨 환자를 위한 춤의 가치와 선행 능력:

Dance for PD(Parkinson's Disease)

프로그램

11

안녕하세요. 저는 무용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미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Dance for PD'라는 파킨슨 환자를 위한 무용 프로그램인데, 제가 거기에 '춤의 가치와 선행 능력'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 보았습니다. 저는 춤을 추고 글을 쓰고 나누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무용수로 활동한 건 오래 전, 20년 쯤 전의 일입니다. 처음에는 무용 테크닉이 좋아서 시작했고, 이후에는 무용수보다는 무용교육을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배웠던 테크닉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집중한 삶인데, 별로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한 10년 전쯤 무용치료분야를 다시 공부하며, 무용치료사로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일반인들과 작업을 하면서 전에 느끼지 못했던 춤의 가치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춤을 다시 사랑하게 되었어요.

2007년도에 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설립되었어요. 무용수의 직업전환을 돕는 전문무용수전문기관인 이곳에서 Dance for PD 프로그램을 영입하게 돼요. 그 당시 저는 노인 프로그램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정신건강병원에서 노인프로그램 경험을 통해 분명 무언가 달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노인병동이다 보니까 어떤 한 가지 병만 가지고 있기 보다는 조현병부터 시작해서 치매, 파킨슨까지 여러 증상을 지닌 분들이 함께 계셨어요. 그곳에서 파킨슨 환자를 처음 만나기도 했지요.

파킨슨병은 치매와 함께 대표적인 신경퇴행성 질환입니다. 신경퇴행성 질환이란 신경 세포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 소멸하게 되어 이로 인해 뇌 기능의 이상을 일으키는 질병을 말합니다.

파킨슨 환자들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안정시 떨림 현상, 근육경직, 자세 및 보행의 변화, 균형감각 저하 등의 다양한 운동증상과 함께 우울증, 치매를 포함한 인지기능장애와 같은 비운동 증상이 병증이 진행되면서 동반됩니다. 우리가 운동을 시작하려고 할 때 뇌 속의 기저핵 부분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몸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해요. 동작을 하면 이미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고 있는 것이죠. 파킨슨 환자들은 이 도파민이 안정적으로 분비되지 않아서 운동기능에 장애가 오는 겁니다. 파킨슨병은 낫진 질병이었지만 고령화시대가 되면서 점점 증가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65세 이상의 사람들 100명 중 한 명이 가지고 있는 흔한 질병이 되었다고 합니다. 손발의 움직임, 떨림 현상 완화를 위한 약물치료 효과가 높은 편이고 발음이상, 삼킴 장애, 보행불안정 및 자세불균형이나 우울, 인지기능저하, 정신증상 역시 약물치료 효과는 그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개개인의 상태에 따른 맞춤치료를 하는 정밀의학의 시대로 약물, 수술로 하는 치료 이외에 다양한 치료의 방법들이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며 이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재활, 운동치료, 음악치료, 무용치료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Dance for PD는 마크모리스 댄스그룹(MMDG)과 브루클린 파킨슨그룹(BPG)의 협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2001년 파킨슨병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무용 수업을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브루클린에서 시작된 이후 전세계적으로 Dance for PD 마스터 클래스에 참여하고 있으며, 심화 워크숍을 통해 강사를 양성하고 지역커뮤니티를 통해 지속성을 유지하므로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Dance for PD는 마크모리스 댄스그룹(MMDG)에서 관리 및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대만을 시작으로 아시아로 확대해 한국은 전문무용수지원센터와 2007년 제휴관계를 맺은 바 있는데요. 2017년 9월1일 대학로 이음센터에서의 국제심포지엄에 이어 2일-3일 이틀간 강사 양성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서류심사와 온라인(www.danceforpd.org)을 통한 교육 및 테스트를 합격한 수강자들이 워크숍에 참여하여 보다 실질적인 교육을 받은 후 임상을 거쳐 2018년 최종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현재까지 DCDC(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Dance Studio 마루에서 매주 월요일 2시에 열리는 Dance for PD 수업

및 각 지역에서 Dance for PD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춤이 파킨슨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대학에서 춤추는 그룹과 일반운동으로 나눠 관찰한 결과 춤추는 그룹이 인지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매는 뇌세포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세포를 살리려면 운동이 중요합니다. 인지능력도 좋아지고 운동능력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춤이 그런 면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Dance for PD의 모토는 ‘환자가 아니다,

무용수이다’입니다. 수업의 목표는 “혁신, 창조성, 예술성, 협업, 포용, 공동체, 상호존중, 즐거움”이고요. 무엇보다 파킨슨 환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공동체와의 연결성을 생성한다’는 부분인 듯합니다. 저는 파킨슨이 가혹한 병이란 생각을 합니다. 환자들을 만나보면 몸이 마음대로 움직일 때까지는 사회에서 지위와 명망이 있었고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음식을 먹을 때 갑자기 흘리게 된다는가 가야하는데 몸이 멈춰버리거나, 말을 잘 못하게 되는 상황 등이 생기니 사회에서 활동하기에 자존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집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더라고요. 바로 이점이 우리가 파킨슨 환자를 일상에서 자주 보지 못하는 이유라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을 지닌 환우가 모여, 무용을 통해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표현해내고 자신을 탐색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가 좋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수업할 때 가장 힘든 것은 ‘무표정’이었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고, 뭔가 불만이 있으신 것 같고요. 증상 때문인 걸 알면서도 수업 내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나중에 여쭙보면 다 재미있으셨대요.

수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에 대해서는 두 말할 필요도 없고, 참여자들 모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환자들의 질병 정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두 소외되지 않도록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술적 감성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술적 감성이예요.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음악을 주었을 때 자신이 상상한 이미지를 예술가처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거죠.** 세 번째는 명료한 소통의 언어 만들기입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동작이 당연하지 않기

Dance for PD 수업을 위한 13가지 요소

1 수업 전,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수업 후 모든 사람들이 환영받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들이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수업 전체를 머무를 수 있도록 격려하라.

2 촉진적이고 역동적인 움직임 표현을 창조하라. 하지만 할 수 있는 정도로 동작을 세분화하여 보여주고 반복하여 수행함으로써 숙련감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3 가르치는 움직임을 묘사하기 위해 생생하고, 기억할 만한 이미지를 사용하라.

4 음악과 함께 전체 움직임 구절을 나누어서 시도할 수 있도록 한다. 더 많은 활동이 가능한 참여자들을 위해 활동을 변경하거나 속도를 다양하게 조절한다.

5 수업의 반복된 움직임 재료와 새로운 움직임 재료를 7:3정도로 분배하라.

6 참여자들에게 가장 편안한 박자를 찾아 가르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라.

7 명확한 리듬과 멜로디 구성, 그리고 정서적 느낌을 가진 적절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음악을 사용하라.

8 보편적이고 질적이며 예술적인 언어를 사용하되 재미와 유머를 유지하라.

9 참여자들의 요구와 기능에 맞도록 앉아서 하는 활동, 서서하는 활동, 이동하는 활동에 대한 비율을 적절하게 유지하라.

10 안정적이고 친절하면서도 모두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완된 분위기를 유지하여 교사 스스로도 수업시간이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11 수업을 도울 수 있는 보조교사, 지원자, 자원 봉사자, 집단 진행자 등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라.

12 매 수업마다 하나씩은 즉흥적인 활동을 포함하라.

13 시작과 끝은 서클로 진행하라.

14

15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정확하게 동작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법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영받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들이 수업 내내 머무를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동작을 세분화해서 보여주고 반복하고 수행함으로써 숙련감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르치는 움직임을 묘사하기 위해 생생하고, 기억할 만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에 맞춰서 음악을 주고요. 이렇게 하지만 다음에 오면 다 까먹고 오세요. 때문에 새로운 건 3정도만 하고, 했던 것을 7정도로 다시 하는 것이 중요해요. 참여자들에게 가장 편안한 박자를 찾아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한 지점입니다. 보통 MR을 틀어놓고 수업을 하는데, 파킨슨 환자들은 매우 느리기 때문에 과감히 그 음악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수업 가이드에는 매수업마다 즉흥적인 활동을 포함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즉흥은 굉장히 쉬운, 일상생활에서 하는 움직임입니다. 시작과 끝은 서클로 진행하는데, 그렇게 하루치 프로그램이 끝나게 됩니다.

Dance for PD를 통한 연구결과들이 꽤 있어요. 파킨슨과 관련된 연구결과는 훨씬 더 많은데 프로그램하고 관련된 연구결과는 미국에 30여개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행 및 떨림 향상, 단기 이동성 향상, 피로도 기분장애, 우울증이 좋아졌다”는 수치상의 연구결과가 대표적이에요. 저는 이것이 춤이 보여주는 선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업에 오는 낙에 산다고 하면서 한 주 한 주를 기대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환우, 이 수업을 통해 약을 끊지는 못할지라도 오래 살 거라는 기대와 의지를 갖는 환우,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안 좋은 환자를 부축해줄 수 있고 위로해줄 수 있어 행복한 마음이 든다는 환우들의 피드백이 저에게 기뻐이고, 춤으로 만들어낸 선한 능력과 변화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은선 발표 감사합니다. 오늘 김미영 선생님께서는 Dance for PD 워크숍에 참석한 것처럼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두 번째로 미술치료사이자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정은혜 선생님의 발표를 듣도록 할게요.



정은혜

미국공인 미술치료사(ATR), 화가, 생태예술가
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미술치료 석사
제주생태프로젝트 오롯 공동대표
날으는 물고기(생태예술치료센터) 대표

저서

「변화를 위한 그림일기」,
「행복하기를 두려워 말아요」 외



16

17

Flow art therapy

: 참여자, 치료사, 환경의 관계와 몰입이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경험, 그리고 그 경험에
예술적인 감흥으로 반응하는 미술치료

저는 제주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종암동에 살다가 이민을 갔었고 30대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다시 미국으로 가서 미술치료사가 되었습니다. 제주에서 자리를 잡은 것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제일 처음으로 했던 일은 「스튜디오 미술치료」라는 책을 번역한 일입니다.

「스튜디오 미술치료」에서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반응예술’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자인 캐서린 문 교수님은 ‘react’하지 말고 ‘respond’하라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하셨습니다. reaction과 respond 둘 다 한국어로 반응이지만, reaction은 바로 일어나는 반응이고, **respond는 자극이 들어와서 내적인 감성의 일렁거림을 일으키고, 이것이 예술과 같이 은유적으로 표현되는 방식을 말해요. 그 순간 치료 하는 사람과 치료 받는 사람 사이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모든 가능성이 열리는 그 흐름에서 우리는 모두 깊은 치유를 경험하게 돼요.**

저는 ‘스튜디오 미술치료’라는 표현이 미술치료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심지어 ‘스튜디오 미술치료’식의 전문가 양성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심리검사와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나움버그식 미술치료를 반대하는 크레이머식의 미술치료를 가르치는 사설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놀라서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캐서린 문의 스튜디오 미술치료나, 크레이머의 미술치료 (“art as therapy”)나 나움버그의 미술치료 (“art in psychotherapy”)가 미술치료의 종류를 구분하는 카테고리가 아니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크레이머식과 나움버그식의

이분법적인 구분이 미술치료를 ‘미술’과 ‘치료’의 경험으로 배우지 않고, 언어로 배웠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술치료를 심리학의 용어나 정신분석의 언어나 뇌과학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것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비언어적이고, 비체계적인지가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급을 받는 게 억울하다 보니, 이성과 과학의 전문적인 옷을 입고 이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고유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미술 자체의 창조적인 힘이고, 치료의 역동적인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치료 또는 치유를 말할 때, 언어의 감옥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단어가 원래 있었던 의료모델과 작별할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서양에서 들어온 외과적인 의료모델 말입니다. 아픈 사람을 온전케 하는 행위에 수술이나 약을 주로 쓰게 된 것은 인류 역사에서 보면, 매우 최근의 일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아픈 사람을 온전케 하는 행위는 공동체의 어른을 만나는 것이었고, 위대한 자연과 연결하는 행위였고, 예술의 은유와 의식의 승화를 사용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흐름이 일어나는지가 중요합니다.

18



해인성종림제전 사진

19

제가 하는 작업은 어떻게 보면 미술 그 자체이고, 어떻게 보면 미술치료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생태예술, 혹은 커뮤니티아트이기도 합니다. 저로서는 그 경계를 그렇게 많이 구분하지 않고 일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일의 바탕에는 미술치료사라는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하는 일, 그러니까 자연에서 생태를 논하든 커뮤니티를 논하든 이것이 어떻게 치유적인 작업인가를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자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편이에요. 바닷가도 가깝고, 걸어서 10분 거리에는 숲이 있는 제주도 마을에 터를 잡았습니다. 캐나다에 살 때부터 자연을 경외시해서 자연이 곧 제 작업실이 되었어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튜디오이기도 합니다. 예술이 인간을 치유한다는 말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런데 힐링이라는 용어를 따져보면 원래대로 돌아간다, 분리되고 막혔던 게 뚫리고 붙는다는 뜻인데요. 지금은 회복을 해도 돌아갈 데가 없어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회복될 공동체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생태학자들이 말하기를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자기가 파괴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대요. 우리가 파괴하는 공동체, 마을, 관계 이런 것들이 자연을 파괴하는 것과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저는 참 안타까워요.

예술은 인류의 본성이라고 하죠. 동굴벽화 시대부터 지금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은 예술을 하기를 멈춘 적이 없어요. 감옥에서도, 홀로코스트에서도, 전쟁 난민 캠프에서도 인간은 예술을 계속하였습니다. 건기 이전에 춤이 있었고, 그림 이전에 낙서가 있었고, 말 이전에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아이들이 낙서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염려가 돼요. 결국 인간성이 변화하고 있다는 뜻일 테니까요.

이런 창조성을 활용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움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창조성과 자연스러움이 사라지는 지금 세상에서 예술을 한다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에게 ‘자연스럽다’의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온전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건강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몰라요. 왜냐면 우리 전체가 온전하지도 자연스럽지도 건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서식지가 파괴된 동식물이 건강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서식지를 파괴합니다. 생태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것이 우리가 미쳤다는 증거라고 해요.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신이 사는 서식처인 지구를 파괴하느냐는 것이죠. 예술이 우리를 온전케 하리라는 생각은, 우리에게 공동체가 있었고, 파괴되지 않은 지지체계가 있고, 생명력의 건강함과 죽음의 당연함이 있었을 때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치료를 할 때나 강의를 할 때나 글을 쓸 때나 “모름을 따라가시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모름을 따라간다는 말은 멋있을지 모르지만 망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모름을 따라가지 않는 이유는 실패하기 싫어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실패하면 안 되지만, 저는 모름을 따라가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다보면 실패하게 될 때가 많겠지만, 맨 땅에 헤딩을 하더라도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Flow art therapy라는 이름을 붙여 보았어요.**

이제 제가 모름을 따라가면서 마주한 기적같은 순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선택적 함묵증인 꼬맹이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말을 못하는 건 아닌데 전혀 말을 안 해서 유치원에 가서 문제가 돼요.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도 말을 못한다던지 문제가 있었는데. 처음 만난 날에는 저에게 등을 돌리고 쳐다보지도 않고 말을 계속 안 하고 있어요. 일 년 조금 넘게 만났는데 온갖 예술활동을 다 했어요. 재미있게 놀고 저랑은 말도 잘 하고 활발하고 기운이 넘쳤지만, 자기 스스로 형식을 만들어야 하는 아이이고 형식이 주어진 곳에서는 입을 닫는 아이였어요. 이 아이와 저희 집 커튼을 떼어서 마당에서 공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거울을 보더니 “나 진짜 공주 같아요.” 하고 활발하게 웃고 갔어요. 대단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요. 그렇게 끝났는데 그 다음날 1년 동안 한 마디도 잘 안 하던 애가 유치원에서 손을 들고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기적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진은 저희가 4년 전에 했던 제주생태예술캠프 모습이에요. 반항하는 청소년과 방황하는 부모님을 위한 캠프예요. 이 사진 속에서 아버지들의 모습을 유심히 봐주세요. 엄청 하기 싫은 모습이죠? 도대체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주황색 재킷을 입은



스태프의 얼굴을 보세요.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죠.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진행하는 사람이 이 불만을 견뎌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뭐하는 거냐고 물어도 참아내는 거죠. 캠프가 열리는 곳이 바닷가니까 여기선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그걸 말로 해주지 않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한 아이 아버지가 마지막 날, 중학생 아들과 5분이나 대화했다며 우셨어요. 원래는 10초도 대화를 한 적이 없대요. 어떤 어머니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감수성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향상된 게 아니라 내 아들과 아들 친구들과 선생님과 놀았다는 게 울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치유인가 아닌가를 따질 필요가 있을까요? 예술은 카테고리, 언어화된 구별을 넘어서 실패하더라도 움직이고 행동하는 치료적 힘과 가능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환정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객원교수
Temple University 무용학 박사
국립현대무용단 아웃리치 프로그램 무용학교 및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기획

저서

「우리는 자유로워지기 위해 춤춘다」

「춤은 아무도 버리지 않는다」

「문외한씨 춤보러 가다」 외



22

23

예술치유, 혹은 현실을 마주하는 힘

: 어린이 병원의 작은 댄서들

안녕하세요. 제환정입니다. 저는 무용선생님입니다. 저는 제가 느꼈던 예술가가 치유 활동을 할 때 부딪히는 문제들을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어린이집터에서 환아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2주에 한 번 하는 무용수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저는 “누가 누구를 치유할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저는 대학에서 무용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재능 있는 학생들을 많이 만나요. 그런데 아이들이 행복해보이지 않더라고요. 경쟁적인 환경에서 무용을 하며 성장하는 아이들은 몸 자체가 악기이자 도구이자 결과물이다 보니, 자기 몸에 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잘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소진시켜야만 한다고 믿는 듯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슷한 몸을 갖거나 더 날씬한 몸을 가져야 한다는 등, 경쟁의 서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현 사회의 단면인 것 같아요. 예술은 인간을 연결시키고 사회에서 치유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막상 예술을 전공하는 아이들은 더 아픕니다. 내가 아이들을 더 아프게 하는 건 아닌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예술가가 예술치유 활동을 할 때, 분명히 자기 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기쁨, 만족감, 인간성에 대한 통찰 같은 것 말이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니 저는 오히려 얻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치유는 일방향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예술치유를 하면서, 대상을 약자화하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이들은 특별하고, 이들은 부족하고, 이들은 아프니까 ‘이런 능력’을 가진 내가 이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바꿔줘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아마 예술치유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분들의 고민일 텐데, 과연 예술치유라는 일련의 활동들이 진짜 변화를 가져올까요? 교육의 목표는 변화라고 배웠는데, 한발 더 나아가 치유라고 했을 때는 “변화의 결과가 감지되거나 측정 가능한가?”하는 문제에 답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대부분의 예술치유 과정에서 변화는 예술가의 직관에 의해 감지되고, 정확한 측정은 과학을 통해 가능하겠죠. 또 한 가지 고민은 “나는 여전히 예술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가?” 테크닉, 기술, 과학의 방식이 아니라 예술의 방식을 가지고 예술치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에게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예요.

오늘 공유할 예술치유의 한 가지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 서론이 길었습니다. **저의 예술치유로의 첫걸음은 “창작의 주체이자, 창의력의 보고이며, 사회적 갈등의 봉합제로도 불리는 예술가들은, 과연 건강할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경쟁과 소진에 대한 고민은, 인간성이 발현되는 의미 있는 활동에의 참여에 굶주리게 만들었어요. 결국 우리는 아픈 아이들과 함께 춤을 추기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시에 항암치료를 받을 다섯 살 아이에게 11시의 무용 수업은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라는 우리의 질문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여느 사례들과 달리, 이 사례는 성공의 전시가 아니라, 예술가들의 무모한 도전에 힘을 실어주고 독려하기 위한 것에 가까워요. 우리의 목적은 질병과 싸우거나, 치료를 추구하는



사진 제공 제원정

것이 아니며, 나를 포함한 참여자들이 인간다움을 만끽하는 찰나의 순간을 통해, 현실을 버티는 힘을 얻기를 희망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춤을 통해서 말이죠.

이곳은 대학어린이병원에 위치한 쉼터예요. 장기 입원하는 아이들과 가족들, 형제들이 정기적으로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인지 소수만 오가는 곳이고 굉장히 작은 공간이죠. 교육 프로그램은 중간 값이 있잖아요. 이 아이가 내일 또 올 것인가, 이 아이들은 어느 정도의 활동력과 인지력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곳에서 만난 아이들은 그런 중간 값을 기대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은 언제든지 나오고 언제든지 들어와요. 어떤 아이는 열이 나면 안 돼서 뛰면 안 되는 애가 있고 김스를 하는 애가 있고 뇌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애가 있죠. 이곳에서 만난 아이들은 그런 중간 값을 기대할 수 없었어요. 정은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가의 정신을 가지고 상황에 몰입하여 즉흥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죠.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를 괴롭히는 것은 “이들의 현실에 내가 개입할 준비가 되어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지닌 능력으로 이들을 변화시켜야지라는 욕망이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는데,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아픈 아이를 돌보다가 부모가 같이 아프게 되는 경우도 보고요. 아이들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뭐해?”라고 물어보면 “양치했어요. 밥을 먹었어요.” 이런 답이 아니라 “피 뿔았어요.”, “약 먹었어요.” 이런 대답이 돌아와요. 아이들의 일상을 마주할 때면 심리적으로 동요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른답게, 예술가답게, 회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래는 저희가 진행한 프로그램의 수업안입니다. 내용과 목표를 소개해드릴게요.

프로그램명: 〈춤추는 나라의 앨리스〉

참여 아티스트: 무용교사 2인, 경우에 따라 3-8명의 무용수 출연.

대상: 중증희귀난치질환을 지닌 아이들로 참여연령대와 가지고 있는 질환이 매우 다양함(근육병, 소아암, 만성육아종증,

만성신부전, 선천성 심장질환, 크론병 등). 방문하는 환자 중 60% 이상이 소아암 환자이며, 5-7세가 가장 많이 방문함.

장소: 어린이 병원 내 쉼터에서 제공하는 완화의료프로그램. 병동생활을 하는 환자나 보호자 대상으로 자원봉사자와 외부 활동가들이 다양한 활동을 제공함. 외래대기동안 대기하거나, 입원하는 환아와 가족들이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쉼터.

특징: 미술, 체육, 음악, 놀이 등 쉼터가 제공하는 주기적인 활동 스케줄이 있으나 치료 스케줄이나 컨디션 등에 따라 방문하는 연령, 인원 예측불가능. 링거연결, 휠체어 유무, 컨디션 등에 따라 참여 가능한 신체 활동의 범위가 다양함.

주요 활동내용: 무용 감상(공연, 시연 및 영상) 및 해설, 움직임 만들기, 춤추기.

저희가 하는 활동 <춤추는 나라의 엘리스>는 “테라피”가 아니며, 증상완화가 최우선 목표가 아니라, 환아들을 위한 ‘예술적 활동’입니다. 참여 아티스트는 치료사가 아니며, 아이들이 꼬마 무용수로서 예술적 경험을 하도록 돕는 것이죠. 그에 따라 프로그램 이름도 용감한 탐험가인 캐릭터의 이름(엘리스)을 인용하였어요. 따라서, 기능성의 향상이나 완수를 위한 분화된 움직임(movement) 수업이 아니라, 미학적 맥락이 유지되는 복합적인 무용(dance) 활동을 시도하고자 했습니다. 예컨대, 운동처방이나 증세와 관련한 움직임 제시는 유도하지 않으며, 무용 레퍼토리의 활용이나 상상과 경험에 기반한 움직임 창작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링거와 연결된 환아들을 위해 의자에 앉아서 하는 동작 시퀀스들이 주를 이루지만, 위밍업, 움직임 만들기, 무용레퍼토리 감상, 레퍼토리를 적용한 움직임 만들기, 마지막 정리 인사 등을 구성했습니다.

아동의 컨디션에 따라 움직임에 직접 참여 불가능한 경우 참관이나 부분적 참여가 가능합니다. 소규모 인원과 보호자, 자원봉사자의 참여로 개별적 활동이 진행될 수 있어 아이들 각자의 경험이나 상상을 활용한 개별적인 움직임 창작을 시도하죠. 예컨대, “마트에 간다면 무엇을 사고 싶나요?”라는 주제로 각자 이야기를 나눈 뒤, 의자를 카트처럼 두고 쇼핑카트에 물건을 움직임으로 묘사하며

하나씩 담아 나가는 것입니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미취학아동이기도 하지만, 질병으로 인해 유치원, 학교, 혹은 사회 밖의 경험이 상당히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일상적 경험에 대한 재현(예) 동물원 가봤니?) 보다는 보다 직관적 선택이나 상상의 발현을 추구합니다. 움직임을 반복 재생하는 “따라 하기”보다는 공동 안무자처럼 각각의 선택의 순간을 갖도록 독려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번째 목표에 관해 보충하자면 저희가 아이들의 컨디션을 다 알 수 없으니, 어머니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개입해 주시길 원했어요. 그런데 이미 너무 지치셨더라고요. 24시간 아이와 붙어있으니까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수업이 시작되면 어머님들이 “저 있어야 해요?”하고 물으세요. 그러면 “어디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오세요.” 이렇게 답하게 되더라고요. 앞선 강의에서 Dance for PD 프로그램에서는 그것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저희는 오히려 반대로 어머니들께 커피 타임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이 내가 하고 있는 역할이 있구나 싶어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술의 역할이 지친 어머니들께 커피 타임을 보장하는 거라면, 그것도 예술의 확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술가의 일이라는 생각을 주체넘게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예술가가 됩니다. 그들은 예술교육가가 되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 활동도



하고 나아가서 치유허동으로까지 영역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충분한 훈련이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예술가들도 예술치유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시작할 수 있다는 독려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라고 생각해요. 치유라는 이름으로 약자를 만난다고 생각하거나, 대상과 수혜자의 관계로 나누어 생각하지 않았으면 해요.

한국의 예술기금이나 정책은 많은 부분 위로부터 시작되어 내려오죠. 다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문화예술교육의 경우 정부나 기관이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어 확장에 기여하고 있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예술가들도 그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술가의 역할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예술가의 활동이 어떻게 사회를 바꿀 수 있는지에 관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박은선 감사합니다. 세 분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경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신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저희에게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콜로키움을 준비하면서 예술치유, 예술치료, 예술교육을 어떻게 나눌 것이며 각각의 성격을 규정할 것인지 논의를 오래 했습니다.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경계를 굳이 나누는 것이 의미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라는 아이덴티티의 문제와 직면하기 때문에 그런 정의나 구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일종의 지침으로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직업의 관점에서 보면 달라집니다. 직업의 관점에서는 필요한 구분이라는 뜻이지요. 발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질의응답

박은선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콜로키움을 준비하면서 예술치유, 예술치료, 예술교육을 어떻게 나눌 것이며 성격 규정을 할 것인가에 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은 그런 구분이 무의미한 시점에 우리가 와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그런 구분으로서의

논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을 이해하면서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중심이 되는 예술경험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진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자 만들어졌습니다.

Q. 실제 현장에서는
예술치료, 예술 교육을
어떻게 나눌 것이며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가?
각 현장에서는 실제
예술경험이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가?

김현주 저는 우연히도
2017년도에 한국에 있는
노인정, 노인요양원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노인요양원에서 치매 환자분들을 만났을 때 '이런 것들을
해보세요.'라는 주문을 받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만나야 하는 대상자의 정보가 부재한 상태에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각종 전문지식이나
환우에 대한 이해를 예술가 혼자 찾아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봤어요. 기관과 예술가 간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미영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Dance for
PD에서는 환자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만나는지, 프로그램
활동을 하기 위해 사전에 그 기관과 만나 어떤 작업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10회차든, 20회차든 요양원에서의 활동이
마무리되면 환우분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요, 그

이후의 지속성에 관해 고민해보신 적이 있다면, 그 경험도
나누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영 제가 노인병동에서 일했을 때 했던 고민이랑 비슷하네요.
노인병동에는 다양한 질병을 가진 환자들이 모이고, 그만큼 정보가
많이 필요해요. 한편 지금 Dance for PD는 확실히 파킨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의 파킨슨의 경중에 따라서 보기만
해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환우 분들의 성함 정도만 제공을 받지 그
이상의 개개인의 히스토리를 받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다른 병원에
치료사로 나가도 요즘에는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서, 우울증인지
조현병인지 이런 것도 알려주지 않아요.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자그마한 쪽지, 제일 작은 포스트잇에 써줘요. 병명이나 개인
히스토리는 굉장히 비밀 보장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지원을 받는 사업의
경우 10회, 20회 정도로 회차가 한정적이지요. 사업계획서에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를 적습니다만, 무료로
신청해서 오시는 분들은 후에 자기의 비용을 들여 참여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지속하기 어려운 면이 있죠. Dance for PD는 지금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어서 몇 회 한정이 없고 계속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고민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박소정 선생님을 도와 고려대학교
병원에서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곳은 24회기로 한정이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환자들 스스로 많이 개선되는 것을 느끼니까 더
진행되는 여부에 민감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어떤
연구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지속성 여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Dance for PD가 뉴욕에서 왔잖아요. 그런데 뉴욕 보통의 무용단들이
자체 교육기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Dance for PD는
국고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센터에 자기가 돈을 지불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끝나면 그 이상은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고민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하신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Q. 예술치유에 자신의 성격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이성재 스스로 성격이 예술치유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예술치유란 참 지치는 일이잖아요? 나도 힘든데, 누군가를 치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재환정 치료사로서의 길을 걸어서 예술치유에 합류하거나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로서 이 정도로 참여하는 게 즐거운 의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저도 국립기관에서 여러 선생님들과 몇 년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아티스트가 되는 것과 좋은 티칭 아티스트가 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더라고요. 그 두 영역을 연결하는 것은 무척 어렵고요. 티칭 아티스트의 경우 오히려 인간으로서, 어른으로서 어떤 사람인지 개인의 도덕성, 인간성과 결부되는 부분들이 컸던 것 같아요. 예술치유를 하게 되는 경로는 분명히 한 가지가 아닐 거예요.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창작 작업의 일부가 될 수도 있겠죠. 다만 저는 이것 또한 치유의 길을 넓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홍혜진 이 일을 예술가들이 왜 할까 생각하다 보면 예술가들의 능력에 의해서 이 일을 하겠다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성향도 있을 것 같고, 사회적인 의식에 의한 선택도 있을 것 같아요. 한편 저는 무언가를 관찰하고, 관찰한 것에서부터 발견하고, 그 발견된 것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예술 창작활동 작업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Q. 치료사에서 예술가로 넘어간 계기는?
 연장해서 보면 치유의 개념은 대상(사람들)이 주어지고 그 대상의 특징을 파악하면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관찰하고, 발견하고 뭔가를 함께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플로어토론1 정은혜 선생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치료사에서 예술가로 넘어가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사건 내지는 계기가 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은혜 저는 셀프 미술치료를 매일해요. 그림일기를 매일 쓰고, 매일매일 나를 돌보는 명상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상담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진 시간이 있었어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힘들었고 내 몸이 아프고 소진이 되고요. 피로움에 잠시 하던 일을 내려놓았고,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무엇이 나를 소진하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구분을 할 기회가 되었어요. **미술이 중심이 되고, 창조가 중심이 되는 미술치료 작업을 할 때는 같이 춤을 추는 것 같고, 같이 파도를 타는 것 같아서 소진이 전혀 안 돼요. 창조적이고 끝나고 환호를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누가 치료사고 누가 치료를 받는지 구분이 없어져요. 너무 좋지요. 무엇이 나를 살게 하는가? 무엇이 사람들을 같이 살게 하는가에 관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플로어토론2 무용치료만 15년 동안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훈련을 받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약계층들을 주로 만났었고, 지금은 기업이나 CEO를 대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Q. 우리나라에서 예술치유, 미술치료가 캠페인이나 아마 정부의 지원이나 흐름에 따라 의무가 될 수 있는 방법 대상이 변하고 있는 듯 합니다. 지난 학기에 어떻게 운이 닿아서 한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술치유 수업을 했었는데 좀 많이 놀랐어요. 그 학교 학생들은 안정되어있고 진로가 보장되어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무용치료를 하면서 신경질적인 신체화 증상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특히 남학생들이요. 작년에 서울예술치유허브에서 사업을 했었는데, 치유 개념이 균형이 잘 잡혀 있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회복하는

것을 서포트한다' 일반인들에게 국민제조처럼, 예술치유, 미술치료가 캠페인이나 의무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한 아이디어나 좋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현주 저는 캠페인이 곧 예술 활동이고 예술작업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한다면 그 캠페인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곳부터 먼저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정은혜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인상깊었던 것은 나의 작업 장소는 '다 차려진 곳'이 아니라 '내가 있는 어떤 곳'이란 내용이었어요. 정은혜 선생님 작업을 봤을 때 이것은 예술치료사라고, 이것은 치료활동이라고 규정지을 필요가 있을까? 이것을 예술교육 활동이라고 규정지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만 저는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예술가들이 참 용기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정적인 수입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로서 예술창작과 예술치유의 과정 그 자체를 중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2차 콜로키움

정신건강과 예술치유

2019.10.11.(금) 14:30-18:00

상상캔버스

모더레이터

제환정(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객원교수)

발제자

손지훈(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희태(서울심리지원 서남센터)

박은선(명지대학교 예술심리치료학과 교수)

토론자

조현(한겨레신문 기자)

김미영(무용치료사), 김현주(A.C. 클리나멘 대표)

제환정 안녕하세요. 2차 콜로키움의 모더레이터를 맡은 제환정입니다. 2차 콜로키움은 '정신건강과 예술치유'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세 분의 발제를 듣고, 토론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는 손지훈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으로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본 건강한 삶'에 관해서 이야기 해주실 예정이며, 그 다음으로는 서울심리지원센터의 김희태 박사께서 '서울시 심리지원이 예술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술치유사업을 하는 예술가, 시민을 어떻게 만날까'라는 주제로 명지대학교 예술심리치료학과 박은선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문화예술이 복지가 아닌 인권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상영 중인 영화 <조커>가 인기인데요. 전에는 악인으로만 평가되었던 조커가 오늘 날의 관객들에게는 사회에 방치된 개인, 경제적 격차 속에 소외된 사람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됩니다. 예술이나 심리지원이 특화된 개별 복지의 차원이기 보다는 이제 인권으로 이해되는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콜로키움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손지훈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교수
전) 희망진료센터 부센터장, 센터장
전)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전)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



38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본 건강한 삶

39

보건의료계에서 건강, 그리고 보건의 개념을 이야기 할 때에는 보통 세계보건기구,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WHO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각국의 질병의 이름을 통일하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같은 증상의 병이라도 나라마다 각기 다르게 부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다보니 본질적으로 ‘건강’이 무엇인지 정의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때 건강의 영역에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부분이 들어오게 됩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태를 ‘건강’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문제가 없다는 것은 질병이 없다는 것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WHO에서는 건강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녕한, 잘 지내는 혹은 ‘웰빙(well-being)’한 상태로 단순히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계에서는 이 세 가지 영역에 고른 관심을 보이는 접근 방식을 전인적 접근 방식이라고 말하고, 가장 모범적인 접근 방법으로 생각되고는 있습니다. 이런 정의와 접근 방식은 지금 보기에는 단순히 보이고 자명해 보이는 정의이나, 상당히 오랜 기간의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져 나온 중요한 개념입니다. ‘웰빙(well-being)’은 사회 안에서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몸만 건강의 대상으로 보았지만, 지금은 치유의 개념으로 넓어졌죠.

이런 정신-신체 모델에 변화가 오는 것은 20세기 중반입니다. 2차 대전 후 UN의 일부로 창설된 WHO는 국제 질병분류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건강의 정의도 고민합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사회적 안녕 역시 건강의 중요한 부분으로 제시됩니다. 이는 19세기 후반부터 사회학적 연구 방법론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의 결정 요인에는 유전이나 자연환경 외에도, 상당 부분 사회적 환경이나 조건이 관여한다는 관찰 때문이지요. 사실 “정신질환”은 이 사회적인 요소라는 개념의 도입이 그 정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연과학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은 측정되는 부분이 아니지만, 1940년대에 인류가 큰 사건을 겪으면서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지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몸에서 나온다는 오랜 속담이 있는 것을 보면 정신과 신체는 언제나 함께였던 것 같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정신질환이나 장애인에 관한 구분이 있었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1940-50년대에는 정신병원이 거의 공포영화에 나올 법한 곳이었습니다. 전두엽 제거술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만, 당시에는 노벨상까지 받았습시다. 전두엽에는 충동을 조절하고 사고를 조절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곳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잘라버려요. 수술도 매우 간단해요. 망치로 땅 때리면 끝이나요. 약 5분 정도가 걸렸다고 해요. 한마디로 사람을 바보 만드는 것이죠. ‘정상은 무엇인가?’ ‘평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때론 사회적 통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질환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정상이나 하는 논쟁이 따라옵니다. 일반 대중보다 뛰어난 것? 아니면 평균적인 것? 모범적인 것? 나쁜 상태가 없는 것?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곤 하지요. 하지만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가치판단적인 접근은, 다수와 다른 소수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연결될 뿐입니다. 현재 정신질환은 정신적인, 혹은 행동적인 증상이 있는데, 이 증상이 그 사람의 기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로 정의 합니다. 단순히 우울하다고 해서 우울증이 아니고, 술을 마신다고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신의학과 행동과학 측면에서 사람의 기능이라고 하면, 생물학적인 기능을 포함하기도 하지만(예를 들어 심각한 충동조절 문제) 더 흔하게는 사회적 역할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적절한 수준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것(완벽히 수행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즉 관련된 증상에 의하여, 직장에서,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본인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그 과정에서 관련된 타인과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 하지요.

정신질환은 다시 그 양상과 원인에 따라 구분되는데, 이것이 보통 주요 우울증, 양극성장애, 조현병, 알코올 중독 등 들어보셨을 질병들입니다. 이런 질병들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흔히 생각하시는 것처럼 심리사회적 원인 단독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개인에 따라 고유한 생물학적인 질병 취약성이 있고, 그 개인의 회복 탄력성을 넘는 스트레스 상황이 주어지는 경우 발생합니다. 총알과 방아쇠 모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질병 단계에서는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하지요. 물론 이 치료에는 약물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심리적인 상담, 대인관계의 조정, 사회적인 개입, 그리고 만성화된 경우 재활훈련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의 의학적인 치료는 보통 의료기관에서, 사례 관리



등 지역사회 내 개입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이 두 가지 기관이 나뉘지지 않는 경우가 더 흔하긴 합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역시 가급적 지역사회에서 삶을 영위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인권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치료 효과면에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중의 정신 질환에 대한 편견과 제도적 차별이 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형식적으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 핵심인데,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를 지속하고, 그를 위한 각종 지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지요. 그리고 만성화된 정신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신재활시설(사회복귀시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시설, 그리고 낮 동안의 돌봄이나 재활 프로그램, 직업 재활 등을 시도하는 여러 종류의 이용 시설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의료 기관에서 입원 중에 정서 안정을 위해, 그리고 정신재활시설에서 만성 장애인을 위한 재활의 일부로서 음악이나 미술 관련 예술 치료 등이 일부 제공되기도 하지만, 비용의 문제로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곳은 드문 형편이긴 합니다.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변명하자면, 일반 병원은 환자 20명당 한 명의 의사를 배치하는 것이 법입니다. 요양병원은 환자 40명당 의사 한 명이죠. 정신병원은요? 환자 60명에 의사 한 명이 배치됩니다. 이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정신 질환이 치료되는 병이라고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인 듯 합니다. 최근에는 병원은 아니지만 상담소도 꽤 많이 생겼죠.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지요? 보건소나 구청에서 원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상담의 기능이지만, 나라에서 정한 것은 조현병, 중증병인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신 질환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못하거나, 병원에 가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스티그마랄까요. 그동안 정신병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경험이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또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정신재활시설이라고**

42

43



이름이 바뀌고 있는데, 그들이 병원을 나와서 살 수 있는 주거시설 그리고 재활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씩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런 활동과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술치유가 하나씩 결합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충분한 재원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간신히 작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정밀한 부분이 제공되어 앞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치료되는 방법이 다양해졌으면 합니다.

원래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WHO의 지적처럼 정신이 건강하다는 것은 정신질환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WHO에서는 정신건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할 때, 주관적인 안녕감, 자기 효능감, 독립성 및 역량, 자기실현으로 정리하기도 하고, 긍정심리학에서는 정신건강을 인생을 즐기고, 삶의 균형을 맞추며, 심리적인 회복탄력성을 갖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즉 자신의 발달과제를 충분히 수행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훌륭한 개념적인 정리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나가기에는 조금 장대한 개념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좀 더 명료한 논의를 위해 보건학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앞에서처럼 정의되는 정신질환들은 상당히 심각한 성격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궤적 안에서 정신적으로 지치고, 힘들고,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만, 대다수의 경우 기능성 문제가 일정 정도 이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즉, 정상(이상적인 상태)과 질병 상태 사이에는 아주 넓은 그레이 존이 있는 거지요. 지역사회(병원이라는 곳과 대비되는)에서의 정신적 건강에 대한 담론은 주로 이 지점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사실 이상적인 상태라는 정상은 없을 것이고, 이 그레이존이 정상 영역이겠지요.

공중보건이라는 학문 혹은 활동이 있습니다. 이 공중보건은 의학과 비슷하면서도 상당히 다른 영역으로, 질병의 치료보다는 인구 집단에서의 건강증진을 모색하는 활동과 학문을 다루는 영역입니다. 이 공중보건이라는 입장에서는, 이 지점에서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에 대한 접근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건강한 삶의 방식의 영위,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이 그 활동이고, 여기에 신체와 정신 간의 구별은 크지 않습니다. 공중보건에서는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1차 예방은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는 활동입니다. 2차 예방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통한 후유증을 예방하는 활동을, 3차 예방은 재활을 통해 추가적인 손상을 막고 사회로 조기에 복귀함으로써 질병상태의 만성화, 장기화를 막는 활동을 이야기 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1차 예방이 소위 건강 증진 활동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활동이 있는데, 좀 더 대중에 익숙한 활동은 예방 접종, 금연, 절주 등 특정 상황에 대한 예방이지요. 특정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특정 방법이 사용되고, 주로 의료 기관이나 보건 기관을 통해 수행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건강증진, 즉 일반적으로 건강관리라고 생각되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건강한 생활 습관 만들기 등입니다. 여기에는 충분한 휴식, 건강한 식단, 운동 등이 포함되겠지요. 이 건강 증진 활동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정신건강 관리입니다. 정신건강 관리에는 정서의 안정, 소진 예방과 일과 삶의 조화, 스트레스 감소, 가정폭력 및 학대 예방 등을 포함한 다양한 돌봄 활동들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정서적인 편안함을 이룰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의 발병을

막고자 하는 활동이지요. 이런 측면에서는 일찍 퇴근해서 가족과 편안하게 대화하고, 같이 산책 나가는 것만 해도 중요한 정신건강 활동이긴 합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하는 예술 활동 역시 매우 중요한 정신건강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정서적 편안함을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우선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자신의 내적인 경험에 집중하고, 감정을 표현하거나 발산하는 것에 예술 활동만큼 강력한 도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요동치는 부정적인 감정은 자기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충분히, 그리고 성숙한 방식으로 대처가 되지 않습니다.** Logos, 즉 인지적이고 철학적인 방식을 통한 직접적인 자기 이해의 방법도 있겠지만,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내적인 경험과 감정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훨씬 용이할 것이고, 성취감과 흥미도 따라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제환정 손지훈 교수님 발제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한 태도, 정상과 비정상을 양분화하려는 인식 그리고 병리 우선의 처방, 사회적 스티그마에 관해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치유보다는 치료를 우선으로 하는 사회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 사회가 치유적 관점에 보다 열릴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점을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발제를 듣겠습니다. 서울시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예술치유를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희태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김희태

서울심리지원센터, 정부과제 평가위원

국제난치병협회 회장

단국대학교, KC 대학교 대학원 강의

전) 경기도립의료원 본부 기획조정실장, 경기도청 보건복지국 근무

저서

「서울시민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I」,

「서울시민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방안 II」



46

47

서울시 심리지원, 예술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심리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김희태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서울심리지원센터의 설립 배경과 운영현황 그리고 예술치료와 심리지원 서비스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심리지원센터는 행복한 삶을 원하는 서울시민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차원의 심리지원 프로그램 및 지원기관 모형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2015년 연구개발에 착수하여, 신규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017년 9월에 제정된 기관의 조례를 살펴보면, '삶의 만족 및 행복증진을 원하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차원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심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심리평가·개인상담·심리교육·집단프로그램 등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정의한다. 서울시 거주 시민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법」 위기상황에 속한 개인 또는 가구원 등은 다른 시민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등의 목적을 지닌 기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 시작할 때 참고한 통계에 따르면, 우울감에 관한 경험이 8.3%, 지난 2주간 스트레스를 느꼈다는 항목이 62%, 지난 1년 간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사람이 7.0% 정도였습니다. 이런 통계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모형 개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행복이란 뭘까요? 행운은 네잎클로버, 행복은 세잎클로버에 비유해서,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 세잎클로버를 밟는다는 이야길 하죠. 저도 심리상담을

하다보면 비슷한 예를 듭니다. 자신의 기대와 만족도 사이의 갭이 얼마나 크고 작은가에 따라 행복의 척도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기대를 너무 높였을 때는 만족도가 당연히 떨어질 겁니다.

2015년 동남센터(송파구), 2016년 동북센터(도봉구), 2017년 서남센터(양천구)를 열었고, 2017년 9월에는 조례를 제정(서울특별시)했습니다. 불특정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지원 기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배경 아래 설립되었습니다. 2018년부터는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하였는데요. 보시는 것은 서남센터의 사진입니다.



사진 제공 ©서울심리지원 서남센터

서울심리지원센터는 권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요구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심리상담을 원하는 직장인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녁 8시까지 야간에 심리상담을 하고 토요일에도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 심리기관이 이미 있기 때문에 포괄적, 예방적 심리지원을 한다는 전제로 출발했습니다. 가벼운 일상의 고민거리, 의사소통의 문제해결,

행복감 증진, 스트레스 감소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 모형을 근거로 심리지원을 하며, 처음 심리검사를 했을 때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결과가 나오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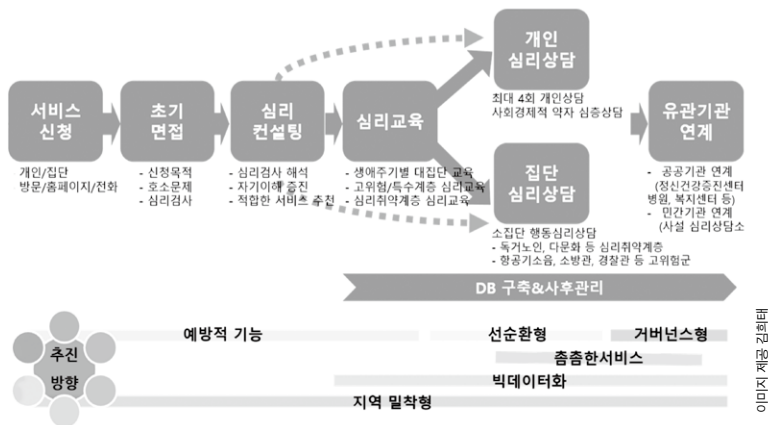
서울심리지원센터 세 가지 큰 목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서울시민의 스트레스,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할 심리지원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적극적이고 예방 지향적인 넓은 범위의 심리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 심리적 지지와 행복감 증진, 스트레스 감소의 소극적 차원에서의 지원, 사회구성원으로 보다 적극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전반적인 생활지표 등 긍정적인 향상을 기대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수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기존 정신보건체계는 심리적 장애 단계의 정신질환자의 치료, 요양, 재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다수의 일반시민 접근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낙인’ 찍힐까봐 정신보건(건강) 관련 시설 방문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경미한 부적응 단계를 거치고 있고, 잠재적인 부적응 단계에 있으며 심리지원 서비스를 요구(국립정신보건교육 연구센터, 2008, 스트레스 상담, 대인관계 문제 상담) 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부적응 단계는 정서적 괴로움, 행동적 부적응, 성격적 미성숙,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의 문제 등이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일상적, 사회적, 학업적, 직업적 곤란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지요. 따라서 가벼운 마음으로 일상의 고민거리를 상담할 수 있는 공공 심리지원 서비스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검증된 개입법을 통한 심리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민간기관의 수적 증가에 따라 공간 접근성이 용이한 점은 있으나 저소득층은 고비용문제로 접근이 어려웠던 지점을 보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종종 이슈가 되어왔던 민간심리기관 전문성과 효과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의 질 관리, 효과성이 검증된 심리상담 모형에 근거하여 확보된 심리지원 개입법을 직접 시민에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약 계층을 포함하여 서울시민 누구나가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심리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서비스 제공 체계는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세 가지 단계로 상담이 진행되는데, 처음에는 초기면접이라 하여 기본적인 심리검사를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는 주된 호소를 보고, 심리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이후 개인 심리상담 또는 집단 심리상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연계와 순환이 진행되는데, 한정된 인력 때문에 신청하는 시민이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앞서 손지훈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심리상담 조차도 스티그마, 낙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서 SNS를 통한 온라인 상담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 말을 기준으로 4,425명이 센터를 이용했고, 심리교육은 1,374명이 받았습니다. '찾아가는 특별상담'이라는 이름의 집단상담은 현장에 찾아가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하는데 약 1,154명에게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는 찾아가는 특성화 사업, 각 대학 상담센터와 연계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참 많은 정신 관련 기관이 있습니다. 정신보건체계 내에서는 495개의 기관이 있고, 자치구별 정신보건기관으로는 161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센터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특성화 사업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왔고, 앞으로도 고민을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

04. 예술치유와 심리지원서비스 어떻게 만날 것인가?

3. 예술치료와 심리지원 추진방안은? □ Type I 프로그램 연계형

□ 프로그램 연계형

(단계별; 프로그램-팀조직 확대)

서울예술치유허브와 심리지원센터

프로그램 연계형(2020년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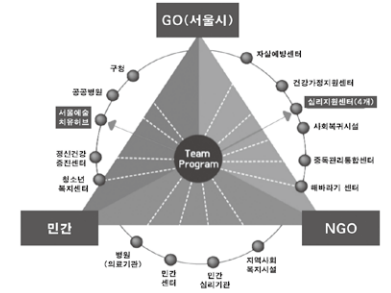
→ 현재 시스템에 접목하여 협업

접근이 용이하며 심리지원 서비스

만족도 제고의 기대효과

→ 서울예술치유허브와 협약을 통한

전문가와 프로그램 공동협의체 구성



센터별로 각자 고유의 특성을 찾아가고 있으며, 예술치유와 관련된 심리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성을 확대하는 기본방향은 모든 센터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누구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만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고민일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 '프로그램 연계형'이라고 되어 있죠. 가장 쉽게 접근이 가능한 것들과 현재 시스템을 접목해서 예술치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개의 입체 삼각형 그림은 거버넌스 형태로 서울시, 왼쪽이 민간, 오른쪽이 NGO입니다. 이 분류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서울시와 민간 가운데 구청과 공공병원, 왼쪽에는 서울예술치유허브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조직이 중간에서 어떻게 만나야 할까요. 고민해보면 답은 팀과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예술프로그램을 심리지원 상담에 접목하는 것, 심리지원 교육에 접목하는 것 등을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성화된 예술심리치유센터를 만들거나, 기존의 센터를 특성화, 전문화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중장기 계획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트워크 기제 모형에 의해서 기존에 있는 서울심리지원센터와 서울예술치유허브의 네트워크 사이에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복되는 서비스를 정리하고, 단절되는 서비스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예술과 심리지원이 어떻게 만날 것인가라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다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한정 서울심리지원센터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자세하고 유의미한 자료들과 함께 제안점, 구성, 그리고 하시는 일들, 향후에 예술치유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말씀까지 들려주셨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의 1인당 정신건강 예산이 적혀있어요. 수요는 이렇게 폭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디쯤일까 생각을 하게 되네요. 플로어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여러 질문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방의 측면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정량화된 수치를 요구하는 정책의 입장에서는 약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마지막 발제자인 박은선 교수님께서 예술치유 사업을 하는 예술가는 시민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관한 주제로 자기돌봄과 책임에 관하여 경험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박은선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예술심리치료학과 교수

한국표현예술심리치료학회 회장

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미술치료학 석사

이화여대 심리학과 석,박사

전)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예술치료학과 겸임교수

전) 가족아카데미 상담팀장 및 미술치료사, 열린마음 클리닉 미술치료사



54

예술치유 사업을 하는 예술가, 시민을 어떻게 만날까.

55

저는 명지대학교에서 예술심리치료를 가르치고 있고, 실제로 내담자를 만나는 미술치료사이기도 합니다. 여기 오신 선생님들은 혹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나요? 스스로를 예술가? 예술교육가? 예술치료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각각 손을 들어보시겠어요? 그동안 여러 비슷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봤는데, 이 영역의 색깔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많았습니다. 정신건강과 관련한 수요는 많은데,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적어요. 비용이 회기당 10만 원이네,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지요? 저는 병원에서도 일을 하고, 민간센터에서도 일을 많이 하는데 자폐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가 회기당 5-6만 원, 한 달에 20-30만 원의 비용을 치르면서, 언제까지 얼마만큼 아이를 치료할 수 있을까를 계산하다보면 괴롭거든요. 이처럼 공급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전보다 나 아프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여기서 ‘정상이십니까?’라고 질문하면 손들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는 질문에는 손을 제법 들겠죠. 우리가 예술치유 사업을 한다고 문을 열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올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단 뜻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가 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술교육가이거나 예술가인 분들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호소할 때,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내가 왜 그것까지 해야 하지? 나는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잖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술치료가 병리적인 치료는 아니지만, 치유든 치료든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예술가, 예술교육가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예술가,

예술교육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괴로움을 호소합니다.

예술치유 지원사업 관련 컨설팅도 하고 있는데, 제가 들은 인상깊은 말을 몇 가지 골라왔습니다. '뭐가 어려우냐'고 물어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대요. 프로그램이야 얼마든지 짤 수 있대요. 프로그램의 횟수와 내용은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정작 모르겠다는 것이죠. 예술교육을 하거나 시민을 대상으로 예술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4회, 8회 정도의 프로그램은 수월하게 짤 수 있지만, 그런데 치유의 영역에서는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안 된다는 거죠. 예술치유는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먼저 사람을 만난 다음에 파악을 하고, 어떻게 대할 것인지 생각하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나 자신의 주 예술 활동만으로는 예술치유가 원하는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예술치유에 적용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술치료, 예술교육, 예술치유 이 세 가지 영역 규정은 서로 배타적일까요? 이런 오해는 직업으로서의 규정과 개념 자체를 혼동하는 데서 오는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수준에서 이 영역들은 결국 같은 속성을 공유합니다. 그러나 일로 넘어오게 되면 배경 이론과 자격조건, 적용 등의 요소들이 등장하고 여기서부터 복잡해지지요. 저는 이 영역들은 축이 세 개 이상인 공간에 배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치료만 해도 예술, 심리학, 정신의학 등이 논의되는 실정이니깐요. 복잡하긴 해도 그러나 나는 내 일에는 항상 회색지대(혹은 습지, Timm-Bottos, 2016)가 있어서 어찌면 좋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관심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안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제안은 몸에 익게 되면 예술치유 현장만이 아니라 한 개인이 놓인 여러 관계 속에서 적잖이 효자노릇을 할 수 있는 덕목들이지만, 어떤 것은 익히는데 시간과 공이 들어서 바로 적용하기 어렵고 또 스스로를 속이기도 합니다('난 그러고 있어' 혹은 '난 안 그래'). 그렇다고 현장감 있는 노하우 리스트를 제안하는 것은 아님을 미리 밝힙니다. 우리의 일은 문제정의와 해결의 과정이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모호함의

56

57

세계에 속하는데 여기에는 전문적 기술 혹은 노하우보다는 자기의 창조성에 기반을 둔 전문적인 기예(artistry)가 필요(Schön, 1983)하기 때문입니다. 매 접촉을 고유의 접촉으로 여기는 곳에서는 참여자의 욕구와 의도를 세심하게 파악하고 자기 작업의 목적과 방향에 따라 행동과 반응을 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 모든 과정에서는 성찰적 반성이 요구됩니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민은 이 믿음을 배반할 때 생겨나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여자들에 대한 이해이므로 이들의 신체적, 심리적, 행동적 특성에 대한 공부나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에게 요구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의 자문도, 이전 경험에서 배운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보들은 단체들에게 접촉의 방식과 경계, 작업의 주제와 형식(예술치료에서는 중재 혹은 개입이라고 부르는)을 가이드하게 됩니다. 사실 목표와 방향에 따라 개입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지난한 훈련과 지도감독이 필요하고 적절한 개입은 요원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서 익혀가게 되지요. 이해와 적용 간의 간극을 좁히는 길은 집단적 특성에 대한 선이해 외에 개별적 만남에서 파악되는 내용들이 예술작업에 긴밀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자들과 교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유의 이름을 달고 하는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는 사람들은 어떤 욕구와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사람들은 여기 오면 자신의 스트레스가, 고민이, 지루한 일상이 어떤 방식으로든 달라지고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정도를 가늠하기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짐작하기 어려워도 예술가 역시 예술이 갖는 치유적 속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예술활동 자체가 자동적으로 치유를 담보할 수 없고 우리는 다수의 사람들의 행동과 이야기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많이 발생하고 그일을 수습하느라 분주해져서 본래 마음에 지니고 있던 생각을 잊어버리는 위험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술이 치유적이기 위해서 최소한 참여자들이 작업에 몰입하고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고 안내하는 일은 예술가 또는 예술치료사 그룹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에서 현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익히고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삶에서 좀 더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예술은 아직도 낯선 분야입니다. 예술가 단체가 제공하는 어떤 활동은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불편해합니다. 손을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조차 이런 난처함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진입의 순간이 예술참여에 대한 인상을 좌지우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순탄하고 편안한 과정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예술가 단체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종종 관찰자인 내가 목도하는 것은 '자유롭고 편안하게, 자기 마음대로 작업하라'는 친절하고 허용적이나 생각해보면 무심한 제안입니다. 긴장되고 불편한 상황에서 '편안하라'는 요구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마음을 '표현하라'는 지시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유로움'과 '창조성'에 대한 요구가 어떻게 들리나요. 그러므로 먼저 그 낯설음을 공감하는 것, 그리고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여러 요인들을 세심하게 파악해서 이를 완화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예술치유허브의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어떤 예술가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의

대응은 참여자가 어떤 기대와 욕구를 가지고 치유사업에 참여하는지 조금이라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그것에 맞출 수 있는지에 관해 점검도 필요합니다. 예술가는 어떤 기대나 욕구를 가지고 이 치유사업에 지원을 하는 건지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죠.

예술가들은 이런 과정과 활동을 통해 예술이 가지고 있는 치유적 속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과 감상이 치유의 대상자들과는 친절하게 공유되지 않아요. 서로의 언어가 달라서 번역되지 않는 것이죠. 예술치료사들이나 예술가들은 간혹 예술 활동 그 자체로 자동적으로 치유가 된다고 믿는 경향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예술 활동은 활동이고, 치유는 셀프냐고 저는 가끔 질문합니다. 예술작업만 해서는 치유가 되지 않아요. 치유라는 것은 결국 관계적인 속성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는데서 오는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말을 시키는 거예요. ‘왜 오셨냐, 어떻게 오셨냐, 무슨 기대를 갖고 있느냐’ 등이에요. 이때 알게 되는 개개인의 문제를 8회기 동안 같이 해결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엄청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더 중요한 치유적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몰입을 도와주고 제한적인 시간 안에서 어떻게 몰입하게 하고 예술 작업을 완성해 나가게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다보면 좋은 치유 프로그램의 방향이 보이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일을 하다가 미술치료사가 되었어요. 하던 공부가 있으니 얼마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치료사로 살기로 결정했어요.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만난 내담자였습니다. 제가 뭘 해주지도 않았는데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달라졌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좋아졌냐고 오�히려 되물으니, 일상의 언어로 변환된 예술, 치유의 개념과 효과를 말해주셨어요. 내담자들은 자기의 체험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한 말로 전달해줬던 것 같습니다. 내담자들의 변화를 매순간 목도하는 사람으로서 예술치유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치유사업에서 예술가가 관계의 속성, 돌봄의 속성을 잘 이해하는 것은 어떤 작업을 제안하는가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앞서 말한대로 낯선 경험에 잘 진입할 수 있도록 환영하고 표현되지 않는 참여자의 요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인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깊숙이 듣는 경청,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마치 내가 느끼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공감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돌봄이 잘 지켜질 수 있는 적절한 경계 설정이 요구되는 것이죠. 경청과 공감은 종종 리액션, 동감 혹은 동의, 넘겨짚기와 혼동되기도 하고 잘 하려면 공도 시간도 듭니다. 경계 역시 참여자들과의 관계가 사업 후에도 그리고 사적인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이 과연 이들이 경험한 치유적 경험을 혹시 변형시킬 위험은 없는가 관찰하고 숙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술치료사가 직업인으로서의 전문성이나 윤리에 관해 엄격한 기준을 요구받는 것에 비해, 시민참여 사업의 영역에서는 작업의 공개라든지 내담자와의 교류가 좀 더 자유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치유’의 이름 아래에서는 여전히 예민한 문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행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자기 객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남의 눈을 좀 빌려야 합니다. 멘토나 자문위원도 눈이 되어 줄 수 있지만 기민하게 살펴주기 어려운 현실이므로 저는 팀원들끼리 서로가 애정을 가지고 서로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제환정 예술이 가지고 있는 치유의 속성을 믿지만, 때로는 예술을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 위험성이 있음을 잘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술치유사로 살아갈 때 주의할 점과 기억해야 할 것들에 관해 상세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과 질의응답

제환정 시작할까요. 세 분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아볼게요.

조현 저는 한겨레신문 조현 기자입니다. 지금의
한국인들은 역사에 유례가 없을만큼 큰 변혁의 시대를 살고
있고, 그로인해 비롯된 경쟁사회 속에 모두가 소외되고
적대시하는 상태에 놓인 것 같습니다. 외로움, 소진된 느낌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감정들을 해소하기 위해
술을 마신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친구를 만나는 등의
치유 방법을 택하는데요. 이것이 훨씬 더 보편적인 치유의
방식인데, 예술치유란 이와 비교해서 좀 더 고급의 단계인
것 같고, 현대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치유의 방식은 아닌
것 같거든요. 손지훈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현대인들이

Q. 현대인이 보편적으로
취할수 있는 치유의
방식과 심리지원
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치유의 방식은?

보편적으로 취할 수 있는
치유의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셨으면 하고,
또 김희태 박사님께서
심리지원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치유의 방식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지훈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이러지?’라고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남성분들이 더욱 그런데, 감정이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냥 화가 난다. 그게 끝이에요. 상담하러
들어와서 화가난다. 왜요?, 그냥 화가나요. 이렇게 끝입니다. 이
감정이 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데 감정을

다를 줄 몰라요. 소진감이나 외로움은 불안함에서 오거든요. 뭐가
불안한지, 어떤 때 불안한지, 불안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그걸 못하는 것이죠. 그냥 스쳐가는 감정이 뭔지를 캐치하고
생각, 감정, 행동을 정확히 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캐치하면 감정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예술치유가 간접적이지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김희태 심리상담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크리넥스
티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크리넥스 티슈를 뽑아주는
것, 그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고요. 미리 불안해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거든요. 상담을 하다보면 90%는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오는 것들을 미리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입니다. 또한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내가 말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것, 스피킹 모드보다는 히어링 모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플로어토론1 손지훈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저는
미술치료사이고 부설로 있는 심리치료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하고 환자에 대해서 긴밀하게 소통하기도
하고, 대학원을 다닐 때도 임상으로 대학병원 같은 정신과 입원병동
같은 데에서 일했습니다. 그렇게 한 10년이 넘게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만, 병원 입장에서 치료사를 전문인으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에요. 치료는 의사가 한다는 느낌일까요요. 의사
선생님들이 예술치료에 관해 폭넓은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지훈 여기에는 제도의 문제가 섞여 있어요. 제가 근무하는
서울대 병원은 평균 입원기간이 5일입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병원 경영 입장에서 보기에는 약간
부수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병동 치료보다는 외래 치료를 튼튼하게 갖춰야 되는데,

제도의 문제가 핵심적으로 끼었습니다. 보상체계에 대한 문제잖아요. 보상체계가 공식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도 않고요. 기타로 묶여서 한 4천 원, 5천 원 하는데 그런 병원 내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들어가서 전문성이 있는 선생님들을 모셔서 프로그램을 하기에도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심리치료센터가 공짜인 것하고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어느 정도 퀄리티가 유지될 수 있지만, 너무 비싸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은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죠. 거꾸로 제도화가 되는 순간 그만큼 서비스 제공이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벌어지고요. 형평성과 어떤 액션 사이에 조화가 어려운 지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강보험으로 조금씩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 방향일 겁니다. 기관에는 충분한 보상이 제공이 되고 비용의 일부가 건강보험이나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서 개인이 감당 가능한 조절로 보상체계를 만드는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이루어지면 전문가들끼리의 협업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64

박은선 저는 시카고에서 미술치료를 공부했고, 제가 주로 일을 하는 곳은 병원 세팅이에요. 미국이 훨씬 이런 제도를 받아들인지 오래됐으면서도 위계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술치료사만 구박받는 건 아니고요.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일 불편해하는 건 자기 자신이죠. ‘내가 왜 여기와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란 생각이 드니, 불만이 쌓이게 되죠. 예술가 집단에서는 치료를 낭만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도 같아요. 제 말은 특별히 예술치료사라서 생기는 문제는 아니란 것이죠. 한편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심리치료센터는 반대로 의사가 고용이 되어 있어요. 상주를 하는 건 아니고, 순회를 하면서 처방하고 진료도 보지요. 이럴 땐 오히려 위계체계가 엄청 달라져요.

65

김미영 안녕하세요. 저는 무용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저도 병원에서 꽤 긴 시간 좌절했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심리지원센터가 예술치료의 또 다른 장으로서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김희태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질문에 앞서서 서남센터에서 전에 했던 사업 중에 무용치료가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 무용치료는 사실 다른 예술치료 분야보다도 알려져 있지가 않아서 모르시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서울심리지원센터라고 하면 일반 개인심리센터를 가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더 문턱을 낮춰서 갈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그들이 심리지원센터를 찾는 여건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많이 만나는데 가정환경이 안 좋은 아이들이 심리지원을 받으면 좋겠다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청소년도 그렇고. 취약계층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이 혹시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아까 최대 4회기라고 봤는데, 4회기 동안 심리적인 지원을 받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그 이상으로의 상담을 필요로 하는 상황들도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Q.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궁금합니다.

방안은?

김희태 질문 잘 들었습니다. 센터의

예산은 4억 원 이내이고, 한 센터 당 인건비가 50% 정도가 나갑니다. 1억 5천 내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제약이 있습니다. 향후에 심리지원센터가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서 더 확대를 한다면 충분히 무용치료를 활용해서 심리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사회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려는 목표가 있는데요. 4회기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최근에 지침이 바뀌어서 8회기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턱을 낮춘다고는 했지만 과연 이용자가 많을까 하는 고민도 있었습니다만. 지역 방송 등에 나가서 심리지원센터를 홍보하고 있는데요.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 너무 많이 찾아오셔서 힘들 정도가 되었어요.

이성재 안녕하세요. 뚝자루무용단 대표 이성재이고요.
예술치유 쪽에 관심이 생겨서 7년 정도 사람들과
함께 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일산 암센터에서
예술교육 프로그램이자 예술무용공연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요. 암환자께서 저희 프로그램을 하고는 암이
없어졌다고 하셨어요. 무용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혈당이
낮아졌고, 암이 좋아졌다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자량을 해야 할지
아니면 사이버처럼 ‘여러분은
저 때문에 나으신 겁니다’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의학적으로나 임상적으로 병원 쪽에서도 예술치유의
효과성을 연구하고 계신 지 궁금합니다.

손지훈 제가 평소에 하는 농담인데요. ‘내가 이상한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정신과에 오지 마세요. 반면 ‘나 아무 문제없어’
그러면 와보시라고 그래요. 자기에 대한 확신이 오히려 조금 더
걱정스럽다고 농담처럼하는 이야기인데요. 말씀하신 거는 사실
예술치료하시는 분들만이 아니고 상담 쪽에서 모든 분들이 느끼시는
것일 거예요.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는 알 수가 없어요. 계속 고민하게
되고, 내가 저 사람하고 건강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런 영향을 주고 있는 건지를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찰은 중요할 겁니다.
내가 왜 흔들리는지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게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사실 몰라요. 무엇이 작동해서 그랬는지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다양한 요소들이 각각의 영향을
미쳤겠죠. 그런데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효과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성이예요.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전제
내에서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평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무용치료면 정말로 그분도
내가 이걸로 나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는

같이 하는 분이 너무 고마웠고 치료에 도움이 되었다고 이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플로어토론2 예술치유는 양적 개념, 정성적 개념이 모두
섞여 있어요. 양쪽이 둘 다 중요하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지금 시스템에서 보면 양적인 부분들에 관해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문화재단의 돈도
받아야 하고, 성과를 증명하기도 해야하니까요. 이런 시스템
안에서 보면 예술가들과 함께 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하지만 예술 행위는 지식이나 기술을 전달하는 것보다도
몰입의 과정, 상상의 과정을 같이 나누고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결과물을 내는 방식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도 같네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재단 쪽
선생님들께서 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수현 말씀해 주신 대로 지원사업이나 교육사업은 참가자 수
등을 계량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공공의 시스템이기는 하지만요.
저희가 그래도 많은 압박을 주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술교육사업의 경우, 사업에 따라서 청소년 다섯 명 정도를
참여시켰어요. 계량적인 면만 생각했다면 그럴 수 없었겠죠. 작년에는
15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했지만, 올해는 30명이었어요.
사회적 예술치유 연구개발이라는 목표로 연구를 우선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공공사업의 수혜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계량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정성적인 부분도 함께 고려하고 공공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차 콜로키움

공동체로
살아가기

68

2019.11.01. (금) 14:30-18:00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다목적홀

모더레이터

김찬호(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초빙교수)

발제자

조현(한겨레신문 기자 및 논설위원)

박민수(은혜공동체 대표)

최선영(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토론자

박은선(명지대학교 예술심리치료학과 교수)

제환정(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객원교수)

이성재(똥자루무용단 대표)

김찬호 안녕하세요. 3차 콜로키움의 모더레이터를 맡은
성공회대학교 김찬호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템아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생각납니다. 그 영상에서 한 학생이 그 전에는
자기가 폭력도 많이 쓰고, 다른 아이들과 겨루고 갈등이 많았는데
엘 시스템아에 참여하고 나서는 친구들과 소통하는 방법도 배우고
자신이 참 많이 바뀌었다고 인터뷰합니다. 놀라운 해석과 성찰입니다.
한편, 과연 예술가들은 정말 멘탈이 건강하고 공동체적인 사람들인가?
라는 질문도 하게 됩니다. 여러 예술적 시도들이 우리 공동체의
치유와 연결될 수 있을까요? 한겨레신문 기자이자 논설위원
조현님께서 ‘왜 공동체는 치유적인가?’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열어주시겠습니다.

70





왜 공동체는 치유적인가

안녕하세요. 한겨레신문 조현입니다. 여러분은 ‘혼삶’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혼자 산다’의 줄임말인데요. 인간은 홀로 살 수 없음에도 갈수록 인간과 어울려 사는 것보다 홀가분하고 자유로운 삶을 택하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간들끼리 협력 없이 문명의 도움만으로 얼마든지 홀로 살 수 있을 만큼 외적인 여건이 변화됐다거나, 핵가족화해 더 이상 자식에게 몸을 의탁하기 어렵게 된 세대의 풍조 등 외적인 여건들도 이런 현실에 힘을 보태는 요인인 듯 합니다. 그러나 통상 간과하기 쉬운 심리적인 요인도 크다고 봅니다. 자본주의 경쟁시대를 달려온 한국인들의 상당수가 에너지 소진으로 지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산업화가 시작된 1960년대 이후, 부모들이 일터로 떠나고 핵가족화하면서 우리는 수만 년 동안 인간이 누렸던 돌봄을 받지 못해 내적인 트라우마를 안은 첫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내적인 두려움과 불안의 트라우마에 따른 인간 불신에 소진이 겹쳐서 혼삶을 찾는 경향으로 급선회하게 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질병평가’(GHE)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세계 우울증 환자는 3억 2천 200만 명입니다. 세계 인구의 5퍼센트 가까이가 우울증 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건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변화가 필요하며 치유할 때라는 신호입니다. 실제 공동체가 더 필요한 사람들은 현대 문명으로 인해 좌절을 겪고, 상처 입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일수록 타인과 섞이는 걸 꺼려 숨어드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히키코모리’(은둔형 인간)가 되어



해결되는 건 없으니까요.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동체의 주요 기능의 하나로 치유를 꼽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만으로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뽕뽕 닫아둔 채로는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없기에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해결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마을공동체는 돌담에 비유되곤 하는데요. 돌담을 쌓을 때 큰 돌은 큰 대로 작은 돌은 작은 대로 자기 쓰임새대로 서로 의지하며 오목볼록을 채워주며 제몫을 하듯 마을공동체도 그렇습니다. 마을공동체 살이를 하는 이들은 “처음엔 누군가 두드러지게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이 없어보였지만 결국 그 존재감 없어 보이던 사람들이 약방의 감초와도 같더라고요. 함께하는 삶에서 열외는 없어요.”라고 말하지요.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건 자기 역할과 쓰임새를 찾으려 자기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는 열패감을 극복하고 자존감을 회복해 치유의 길을 당당히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724명을 79년 동안 추적 연구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하버드대에 다니는 학생들과 보스톤의 가난한 지역 사람들이 그 대상이었는데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74

75

불행하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행복한지를 추적한 연구였어요. 요즘 사람들에게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물으면 경제적, 사회적으로 성공했거나 많이 공부했거나 여행을 많이 다닌다거나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연구결과에서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포인트는 바로 ‘관계’였어요.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있느냐가 행복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동체가 가져다주는 보다 본능적인 화학 작용도 있습니다. 공동체는 어디나 어린 아기들이 많은 것이 특징인데요. 평소 아기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싱글이라 하더라도 귀여운 아기를 보거나, 아무런 선입견 없이 다가서며 장난을 치는 아이들을 대하다 보면, 옥시토신이 생성됩니다. 옥시토신은 모성 본능과 부부애 등을 촉진하는 사랑의 묘약이라고 불리는 호르몬입니다. ‘돌봄’은 돌보아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면도 있지만 실제 돌보는 본인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지요. 사랑의 묘약이 흘러넘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밝은누리 싱글연합가정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아기를 포함한 공동체원들과 어울리면서 대부분 결혼과 출산을 선호하는 쪽으로 변화되는 게 이를 보여줍니다. 소행주¹나 은혜공동체에서 만나본 청소년도 나중에 크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이런 공동체에서 키우고 싶다는 소망을 나타냈어요. **공동체가 치유력을 지니는 것은 사랑이 많은 이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공동체 자체가 소통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서로 돌봄이 옥시토신을 많이 생성하게 해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럿이 모여 서로를 응원하면 고가의 비용을 내야만 할 수 있는 정신과 상담이나 집단 상담과 같은 치유 효과를 체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혼삶으로 인한 외로움과 고독이 심해질수록 함께 하고 싶은 공동체적 욕구도 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한쪽의

1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의 줄임말로, 서울에서는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 마을이 소행주 1호이다.

육구가 상승하면 반대편의 육구도 함께 상승한다는 1980년 하버드대 존 나이스비트 교수의 말대로인데요. 현재 급증하는 공유주택(코하우징)과 셰어하우스, 전환마을²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동체들은 일단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것만으로 치유적입니다. 그러나 잘 어울릴수록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죠. 분위기가 좋은 공동체들은 자연발생적이든 의도적이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몇 곳의 공동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은혜공동체입니다. 서울 도봉동 은혜공동체의 경우는 5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있어서 뮤지컬을 공연하기도 해요. 공동체원들끼리만 7시간 가량의 공연을 이끌고 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SBS 스페셜>에서 취재를 한 적이 있는 공동체인데 ‘간헐적 가족’에도 아주 행복한 모습이 방영된 은혜공동체 멤버들이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데는 그런 문화 예술 활동이 적지 않은 구실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파주의 공방마을입니다. 파주 문발동은 공동체가 아니라 마을 내에서 다양한 동아리가 생겨나 활기 넘치는 공동체



은혜공동체 사진 제공 조현

2 새로 마을을 만들기보다 기존의 마을을 생태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운동으로, 최근 10여년 사이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생태공동체 운동의 흐름이다.

마을이 되어가는 곳인데, 합창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마을 사람들이 남녀 혼성 합창단 파노라마를 꾸려 주말마다 노래를 부릅니다. 이 마을엔 여성들만 하는 ‘천불퀸’이란 모임도 있습니다. 이 모임은 여성들 십여 명이 아이들을 재워놓고 밤 10시 이후 만나 새벽 3시쯤까지 얘기를 나눈다고 해요. 보통 생일이 된 사람을 천불퀸으로 모셔, 그가 최근에 혹은 지금까지 사는 동안 ‘천불이 난’ 속내를 꺼내놓으면, 모두 그에게 공감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조언도 해주답니다. 그러면 십년 묵은 체증이 풀리듯 켜켜이 쌓아온 화가 녹는 체험을 한다고 해요. 마음속에 맺힌 원한을 풀어주는 현대판 해원굿인 셈입니다.



한귀영씨 사진 제공 은혜공동체

이 마을에 또 하나 흥미로운 모임이 ‘영씨네마’입니다. 한귀영씨가 자기 집에 빔 프로젝트를 설치해 주말 밤에 마을 사람들을 초청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한귀영의 이름 끝자 영을 따 영씨네마가 됐습니다. 영씨네마는 주말 밤 8시 이후 2시간 가량 각자 자유롭게 편한 자세로 영화를 본 뒤에 포도주를 한 잔씩 마시면서 얘기를 나눕니다. 사랑 영화를 보고는 자기 첫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사랑으로 입었던 상처를 고백하기도 합니다. 가령 가족 영화의 고전으로 꼽히는 <길버트그레이프>를 보고나서, 한 분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대학 시절 등록금도 내지 못하고 학비를 벌기 위해 알바를 하면서 친구 집을 전전해 숙식을 해결하고 겨우 대학을 다녔던 삶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결혼을 해서도 늙은 부모와 아이들까지

모두 책임지며 살아온 가장으로서 고단한 삶을 고백해 함께 눈시울을 적셨어요. 함께 울어주는 공명만큼 한을 풀어주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평생 혼자 짐을 지고 사느라 힘들었던 무거운 짐이 동조의 눈물 속에서 녹아내리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밝은누리 공동체입니다. 서울 인수동과 강원도 홍천 두 곳에 있고, 합치면 300여 명이 살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유명한 것은 풍물놀이입니다. 고수들끼리만의 모임이 아니라 새로 풍물을 배우는 모임도 있고, 연극하는 모임, 비나리 모임, 노래 모임, 악기 모임 등 다양한 모임이 있습니다. 이들은 매달 국내외로 생명살림 순례를 다니는데요. 주로 제주4.3이나 광주 망월동 같은 학살 현장이나 역사의 아픔이 서린 곳들을 찾아다니며 위로하는 공연을 합니다.



밝은누리 공동체 사진 제공 조현

또 소개해드릴 곳은 충남 보령시 천북의 한 공동체입니다. 이곳은 농지와 야산, 농가가 어우러진 평범한 지역입니다. 이 '별 볼일 없는 곳'이 얼마 전부터 '별 볼일'이 많아졌어요. 폐교 위기에 처한 낙동초등학교 어린이가 26명 전원은 오케스트라 단원이 됐고, 어부와 할머니들이 바리스타가 되고, 먹거리를 퍼주는 축제가 열리며, 이 희한한 마을들을 돌아보려는 여행객이 생겨났어요. 이런 시골에선 꿈꾸기 어려운 것들을 꿈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이가 천북면 신죽리 시온교회 김영진 목사입니다. 김 목사가 1993년 와서 처음 한 일은 거금 550만 원을 들여 빔 프로젝트를 구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예배당 강단에 광목천으로 200인치 스크린을 설치해 따분한 노인들에게 재미있는 영화들을 보여줬어요. 얼마 안 있어 노래방 기계도 구입했고요. 한 마디로 문화 르네상스의 시작이었던 셈이죠. 인근 낙동초등학교가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 대상이 되어 방과 후 학교 지원마저 끊겼을 때이기도 했는데요. 김 목사는 교회에서 운영하던 방과 후 공부방을 그대로 낙동초등학교로 옮겼습니다. 피아노를 전공한 아내는 교회에서 가르치던 피아노를 학교에서 가르쳤어요. 낙동초등학교는 한 방송사의 주선으로 비올리스트 용재오닐이 두 달간 상주하며 아이들을 가르쳐 함께 연주하는 <천상의 수업>으로 시청자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지금도 낙동초등학교 학생 26명 전원은 합창단이면서 악기를 몇 종류씩 다룰 줄 아는 오케스트라



충남 보령시 천북초등학교 사진 제공 조현

단원입니다. 아이들은 천북중학교에 진학해서도 오케스트라단을 유지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악기 연주 바람은 어른들에게로 이어졌습니다. 평생 농사일로 군살이 박힌 노인들이 바이올린과 클라리넷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오케스트라단을 만들어 이제 동요 정도는 연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노인 오케스트라단 15명은 크리스마스이브 때면 광천읍에 나가서 거리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로 유명한 슈마허대학이 있는 영국의 토트네스는 내적 치유를 위해 춤 명상을 적극 활용합니다. 전환마을이 시작된 토트네스의 슈마허대학에서 3년간 공부하면서 전환마을을 경험한 소란씨는 서울 은평구 구산동의 은평 전환 마을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독특한 것이 토트네스에서 하던 식으로 타인과 교감하고 조율하는 걸 돕는 춤 명상인데요. 동양의 명상을 많이 적용하는 토트네스에서는 손을 잡고 서로 교감하는 ‘조율’과 함께 춤 명상을 중시합니다. 이들이 주로 추는 건 오행춤입니다. 오행춤은 다섯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조용히 시작했다가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다시 고요해지는 순서입니다. 사람의 한 생애와 비견되는 이 춤을 추고 나면 기진맥진해 한 시간 정도는 그대로 앉아서 고요하게 쉬어줍니다. 그러다 이를 두 번, 세 번씩 반복하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변화가 급속한 시대엔 어디를 가나 세대 간 불통이 큰 문제인데요. 한마디로 코드가 다를 뿐 아니라 같은 한국어도 세대가 다르면 통하지 않을 때가 많지요. 또래끼리 모이는 동아리와 달리 마을에선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교감과 소통, 조율의 문제가 더 필요합니다. 여러 세대가 함께 지내다 보면 정서적 밑바탕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는 속도에도 차이가 있어 오히려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함께 몸으로 풀고 나면 굳은 마음도 풀어지곤 합니다. 한국인에겐 좌선명상이나 마음공부에 비해 몸 명상이 익숙하지 않고 처음엔 어색하기도 할텐데요. 그런데도 소란씨가 춤 명상을 권하는 이유는 자신의 변화를 실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함께하는 것은 변화를 촉진합니다. 감자와 고구마 당근을 씻을 때 한 바가지에 넣고 씻으면 서로 부딪치며 빨리 씻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리입니다. 그렇게 씻기는 과정은 좀 더 세련되고 원만해지는 과정이자 아픔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부딪침, 즉 갈등을 무조건 미봉하려는 것은 성장에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공동체 밖에서 이웃 간이나 친구 모임, 직장에서도 의례적인 인사치레를 하며 문제는 그냥 덮고 가고자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는 식인거죠. 괜히 건드려봐야 좋을 게 없다는 경험칙이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고요. 속 깊은 얘기를 하는 것이 이상한, 의례적인 사이에서는 일상적인



80

81

일이지요. 그러나 공동체에서는 늘 함께 살아가야 하기에 앙금을 미봉해버리면 더 큰 사달이 날 수 있습니다. 보기 싫으면 안 봐도 되는 이들이 아니고 함께 잘 살아보려고 작성한 사람들이기도 하니까요. 따라서 갈등을 성숙의 여정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속마음을 풀어내는 대화를 통해 상대가 무엇을 아파하고 무엇에 불안해하는지 충분히 듣지 않고, 그냥 덮고 넘어가면 피상적인 관계 그 이상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픔까지 한번 얹혀서 껴안아본 사이가 아니면, 사소한 것에 빈정이 상하고 불편해질 수 있어요. 한 번이라도 깊게 대화하고 상대를 깊게 이해하고 나면 오랫동안 그토록 못마땅하게만 보였던 상대의 행동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화보다 더욱 더 쉽게 공감의 장이 마련되는 것이 문화예술입니다. 직접적인 대화엔 어색해 대면을 꺼리는 이들도 합창이나 악기 연주, 연극, 공연 등을 함께 할 때는 묘한 하모니 속에서 쉽게 동화되어 앙금이 풀리고, 조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일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한 예술이야기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예술전문가도 아닌 제가 이 자리에 서니 민망스럽지만 제가 경험한 것 위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은혜공동체는 2000년 동대문구 회기동에서 개신교 교회로 시작했습니다. 10여년의 시간을 통해서 공동체의 이상을 발견하고 종교 모임에서 공동체로 정체성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동에서 마을 형태로 살다가 2017년 도봉동에 셰어하우스 은공1호를 건립하여 생활공동체를 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독교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종교색을 탈피해 공동체, 복지, 행복 등을 키워드로 삼고 자유롭고 재미있게 살고 있습니다. 함께 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조금씩 사람들이 변하더라고요. 함께 하기 좋은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이죠. 성격에 좀 문제가 있다는 사람들도 스스로 열심히 고쳐가는 모습도 보이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삶의 내용을 자신의 삶에 갖추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공동체로 전환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큰 것은 행복도가 높아진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친밀감이 높아지면서 우울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나는 듯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건강한 관계망을 형성합니다. 관계가 좋아지면 안정감, 만족감, 행복감 등을 느끼고,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커지지요. 시도 쓰고 싶고, 노래도 하고 싶고, 춤도 추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욕구에 의해 여러 예술 동아리들이 만들어지고, 여러 축제들을 하게 됩니다. 같이 있어서 좋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연스레 대화가 하고 싶은

것이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면 뭔가 그 너머의 것을 하고 싶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예술이었습니다. <논어>에 '시를 통해 일어나고 예를 통해서 서며 음악을 통해 이룬다.'는 말이 있는데, 공자께서 공동체와 예술의 관계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동체로 살아가는 삶의 궁극의 자리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예술 동아리들이 만들어졌고 또한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은공양상블(2010년), 거슴아카펠라(2011년), 장미성밴드(2013년), 청소년밴드(2014년), 제이밴드(2016년), 재순밴드(2018년), 다진댄스(2015년), 119댄스(2016년), 헤인댄스(2018년), 해원그림(2017년), 설영화제작(2018년) 등이 있는데요. 팀이

꾸러지면 해체되는 경우는 드물고 오랜 기간 활동이 이어지는 것이 자랑입니다. 매주 모여서 연습을 하고, 실력향상을 위해 개별레슨을 받기도 합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자연스럽게 실력이 향상되고요. 팀내 유대감이 높아져서 공동체 내의 작은 공동체들이 됩니다.

축제들은 작은 음악회(5월), 가을 음악회(9월), 성탄 축제(12월), 대안학교 축제(12월)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 생태마을공동체 축제(6월), 공동체 연대 축제(수시)들이 더해집니다. 모든 멤버들이 무대에 서는 축제도 있지만, 예술 동아리들이 꾸리는 축제도 있어요. 올해는 공동체 예술 동아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제1회 도봉1동 마을축제를 열었습니다. 공동체 액티비티가 공동체 밖으로 확산되어가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일 년 내내 축제를 준비하며 삽니다. 일상을 예술과 함께 하고 축제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일상이 이어지니, 공동체에서는 우울할 틈이 없습니다. 공동체는 삶을 예술로 안내하고, 예술은 공동체를 살찌우는 것 같달까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궁극의 좋은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옛 현자들은 음악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사회에 음악이 가득 하면 그 사회는 이미 행복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는거죠. 그런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레 인류의 역사를 더듬어 볼 수 있겠는데요. 가장 행복한 사회는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면, 아프리카 원시 부족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들은 밥을 먹고 나면 하루 종일 마당에서 마을 사람들끼리 북을 치고 놀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들이 인생을 무엇으로 채웠느냐 묻는다면 당연히 노래와 춤, 즉 예술로 채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에도 우울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70% 정도는 우울한 정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울하지 않기란 쉽지 않기도 하고요. 그런 분들이 모인 공간이었지만 행복도가 높아지고, 그것이 예술로 표현되면서 우울한 사람들이 사라진 것이죠. 자연스럽게 예술의 치유적 현상이 발생하게 된 거라 생각합니다. 그 처음이 되었던 것이 '합창'입니다.

합창하면 마음에서 뭔가 뭉클함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나? 우리가 이렇게 잘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합창 활동이





진행되면서, 여러 장르의 다른 활동이 부차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카펠라 모임, 앙상블 모임, 밴드, 청소년 밴드 등입니다. 팀의 활동 기간도 상당히 긴 편입니다. 길게는 7년이 된 그룹도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단순 취미 활동으로 시작했죠. 하지만 하다보니 더 멋진 음악, 아름다운 춤, 완성도 높은 예술 활동에 대한 마음이 커져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개인레슨을 하시는 분들도 생겨나고요. 공동체 안에서 먼저 배운 사람들이 후발 주자를 가르쳐주기도 하고요. 어른들이 예술 활동을 자주 하다보니까,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예술 활동에 관심을 보입니다. 어린 나이부터 시작하다보니 성인이 되어서는 훨씬 실력이 좋고요. 그렇게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다보니, 발표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레 생겼고 하나 둘 축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년에 네 개의 축제가 있고, 추가로 서너 개의 축제가 더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년 내내 축제와 함께 하는 삶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원시 부족들의 삶과 아주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술 전공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지금은 예술 전문가로 활동 중이지만 그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즐거움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느꼈다면, 오히려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예술이라는 것이 궁극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에서는 무엇을 하든 함께 하면 좋다는 명제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매개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큼니다.

예술 활동은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매개가 됩니다. 예술 활동은 오랜 시간 함께 해야 성취감을 얻는 경우가 많은데, 공동체에서는 이런 점에서 최적의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며 오랜 시간 예술 활동을 하면서 만족해하는 멤버들이 많고, 많은 멤버들이 공동체가 아니면 이룰 수 없었던 꿈을 이루고 살고 있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예술 활동을 통해서 내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의미의 치유적인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요.

최선영

기획자, 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잠실창작스튜디오 운영위원

문화기획, 공연/퍼포먼스, 전시, 교육/워크숍, 연구/컨설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



88

장애-예술-공동체 : 분리된 채로 연결된

89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예술과 공동체가 무엇인지 묻는 자리에서 장애인예술공동체에 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장애인의 삶 혹은 장애에 예술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그리고 예술이 장애에 줄 수 있는 치유적 효과에 관한 기대감이 사회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한 개인적인 문제의식을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시대에 따라 예술가를 정의하는 맥락과 범위가 변하고 있고 요즘은 더욱 '당신도 예술가, 모두가 예술가'라는 구호가 퍼지고 있지만 그럴수록 예술가는 더욱 소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술은 그 자체로 유통에 용이한 상품이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살아나가기 힘든 사회이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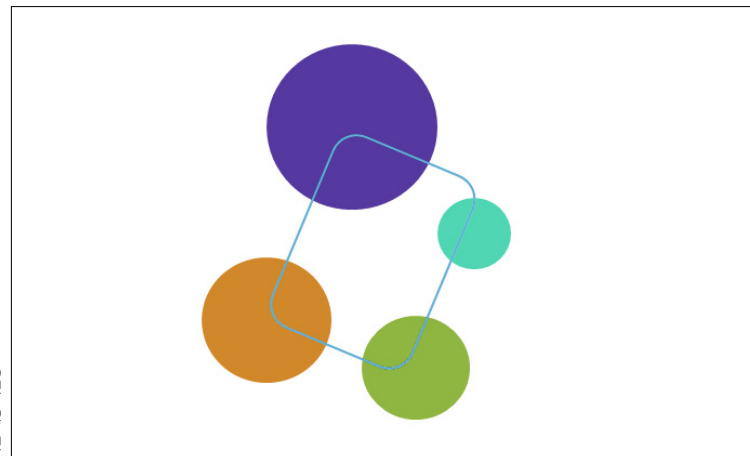
그런 의미에서 현재 저는 예술가가 아닙니다. 단지 예술프로젝트나 일반적인 작품 발표방식인 전시에 이따금 참여하고 있을 뿐이지요. 그럼에도 이 발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오히려 제가 예술가는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술가들의 삶에 관심이 있는 기획자, 활동가에 가깝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의 경험을 나누기에 좀 더 수월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예술가라는 존재가 공동체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말하려는 것이기도 합니다. 덜 사회적이고, 즉흥적이고, 자기세계에 몰입하며, 집단적 활동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캐릭터화된 예술가상에 대해 동의하거나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한국에서의 공동체가 특히 조직화, 집단화를 전제하는 경우에 더욱 예술가의 삶의 방식을 끌어안기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술가가 창작을 하는 과정, 살아가는 방식이 공동체 안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니까요.

예술가의 창작활동은 뚜렷한 하나의 목적을 향해 계획된 일을 해내는 것과 거리가 있습니다. 예술가는 살아가며, 해나가며 방향성을 찾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단체나 조직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공동체의 경우는 그것이 느슨하더라도 운영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필요한 과정을 설계하지요.

공동체를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으로 전제할 경우, 예술가는 '우리가 공통적일 수 있는가', '유사할 수 있는가', 혹은 '왜 그래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나아가며 계속해서 '공동체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 고민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공동체와 결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태도 혹은 삶의 방식이 공동체의 방해요소가 아닌 다양성의 일부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요. 보통의 현실 속에서 공동체는 **예술가가 질문의 생산자가 아닌 예술적 경험의 생산자로 기능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술가이기보다는 예술강사로서의 역할을 바라는 공동체 현장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러한 기대는 예술가적 삶이나 예술가의 입장을 온전히 존중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공동체가 바라는 예술적 경험을 기획 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었고 언제나 자연스럽고 편했던 것은 아니지만 공동체와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공공예술프로젝트나 문화예술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10년 넘게 이곳저곳에서 만나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보호감시 기관에 있는 청소년들, 가족들의 눈치를 보며 매일 다리 밑에 나와 장기와 바둑을 두는 할아버지들, 경력단절이 된 여성들, 불안감이나 우울감이 큰 청년들, 그리고 장애인과 그 가족들. 그 중 장애인과 만나거나 함께 창작활동을 했던 시간이 다른 활동에 비해 많았는데 그것은 비영리예술단체 내에서의 활동이나 특수학교에서의 예술교육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공동체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볼 수 있는 단체 관련 활동 이상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장애와 관련된 활동을, 각각의 무게로 제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여러 유형의 공동체, 그것들 간의 상호성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위의 그림처럼, 저는 여러 공동체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어요. 그 중에는 장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죠. 오랜 시간 다양한 현장이나 사회적 현상을 마주하면서 오히려 이것들이 빈부 격차나 도시생활의 일반화, 불안사회 등과 같은 공통된 이슈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장애, 비장애를 떠나, 삶에 대한 다층적인 경험을 나누고자 여러 단체나 모임 혹은 일시적 공동체 등에 참여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이고 내 주변 사람들, 혹은 구체적인 어떤 공동체의 일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예술적 경험이나 과정이 다른 삶과 연결될 때에는 이러한 활동 범위가 갖는 위치와 규모가 중요하게 작용하더라고요. **예술 자체가 공동체나 구성원의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준다고보다는 어떤 가치나 의미를 중심으로 활동의 범위를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개인의 삶이, 그것과 연결된 타인의 삶에 어떤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단지 예술적 경험이 그 활동 범위에서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경우 우리는 예술에 대해 조금 더 집중해서 그 현상을 해석해볼 수 있을 따름이지만, 예술이 장르로서의 예술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고 볼 때, 이것은 미술이나 문학, 연극, 음악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넘어서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삶이 불안정하고 이따금 오락가락한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이기에 타인이나 사회와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공동체를 포함한 여러 현장에서 예술적 행위를 시도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좀 더 흥미롭기도 하고 나를 표현하기에 자연스러우니까요. 이것은 역시나 예술을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내 개인적 활동 범위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활동 범위가 어느 정도 겹치는 사람 혹은 동료들과의 만남은 저에게 그 무엇보다 편안한 일시적 공동체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각자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기에 서로의 적극성을 기대하거나 강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비슷한 순간에, 같은 장소에 가서 각자의 방향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서로에게 힘을 줘요. 나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거나 내가 누군가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비슷한 고민을 놓지 않고 동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힘입니다.



사진 제공 퍼레이드 진진진 페이스북

2019년 10월 5일

활동범위가 겹치는 사람들과 대학로에서 만나 일시적 공동체를 이뤘다. 장애인의 삶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목소리를 내며 퍼레이드를 하였다.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자고 말하는 대신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이름을 외치고 좋아하는 노래를 불렀다. (퍼레이드 진진진 :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말하기를 예술의 방식으로 보여주려는 프로젝트)

*사진 출처 : 퍼레이드 진진진 페이스북



92

93

예술은 효율성이나 성과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 사회로부터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장애 혹은 사회가 장애를 규정하거나 바라보는 인식 자체에도 예술이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현실적 운영이 필요한 공동체와 예술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역할을 예술가가 해내는 것은 예술적 삶의 방식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예술가가 예술적 효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기능인으로 인식될 경우 예술가로서의 개인적 삶 자체를 존중받는 것은 어려워진다는 점도 이해해야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공동체와 예술의 관계성에 대한 논의는 예술이 공동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넘어, 예술가의 삶 혹은 예술적 삶의 방식이 공동체와 공존하기 위해 서로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의 다른 속성, 지향점, 삶의 방식을 존중하거나 학습하려는 태도를 필요로 하지요.** 이 과정에는 예술가가 얼마나 특이하거나 덜 사회적인지를 확인하려 하지 않는 것, 공동체가 예술가라는 개인에게 어떤 측면에서 필요한지 살피는 것, 다양한 양상의 공동체를 상상하는 것 등이 필요합니다.

공동체는 결국 '함께 살아 나가려는 구체적 의지'로 읽힙니다. 그리고 예술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자원을 마련하고 방법을 설계하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관점이나 의미를 추구합니다.

2012년부터 4년간 함께 했던 비영리예술단체에서의 활동을 최근 장애인 창작자의 부모가 글로 남겨주셨고, 그 글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젊은 예술가는 이것이야말로 예술가가 꼭 갖추어야 할 것이라며 부러워하였고, 일군의 그들은 지금까지 장애라 써 놓은 것을 미덕이라 읽어 주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도 그(장애인 창작자)의 세계에 침범 뛰어 들 수는 없다. 그저 그의 세계를 기웃거리고, 그의 주변을 서성이며 불현듯 조우하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그들의 예술 세계와 그의 미덕 있는 세계가 크로스오버 되는 어느 지점을 찾아 헤매며 우주를 유영하는 막막함. 이 두 아웃사이더 그룹의 만남은 그래서 좀 뿌옇고 아득하게 느껴졌다. 과연 그들은 만나거나 할까? 만난다면 불꽃이 튀기는 될까? 어느 세월에? 처음엔 그랬다. 처음에는.

아마도 내가 생각한 예술은 영감이 불꽃처럼 튀어 오르고, 모두가 우려려 마지않는 걸작을 만드는 것이었나 보다. 그러나 이 생각은 그 예술가들을 만나서 같이 기웃거리고 서성이고 대화하면서 바뀌어 갔다. 그들은 조금하지 않았고 아니 조금증을 낼 무슨 결과를 기다리지 않았다. 스파크 따위 안 터지면 뭐 어쩐가? 설사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유영만 한대도 저기 어딘가에는 나처럼 우주를 떠다니는 유목민이 있다는 사실 만으로 기쁘지 아니한가? 너도나도 이 세상에 태어난 한 인간일 따름이라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고방식과 태도. 예술은 걸작으로 남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예술의 껍데기라는 것. 예술의 알맹이는 지금 우리의 태도에 있다는 것. 이 태도를 나는 중년이 되어 어린 예술가들에게서 배운 것이다. 그것은 행운이었다.

2019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웹진 이음 5호
[젊은 예술가의 태도가 일깨운 삶에 관하여 "재미를 보기에 희망을 가진다"]
고혜실 로사이드 점진호 창작자 어머니, 작가

여기에서 등장하는 예술은 장애와 관련된 현실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으나 타인의 삶에 어떤 흔적을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참 미련하고 답답하지만 저는 언제나 '그러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과 질의응답

김찬호 앞선 발제들을 들으며 제가 청소년기에 이런 공동체를 만났더라면 지금과는 참 많이 달라졌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부럽다는 마음도 들고요. 세 분의 발제에 관해 명지대학교 예술심리치료학과 박은선 교수님,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제환정 교수님, 똥자루무용단 이성재 대표님의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선 말씀을 듣다보니 공동체를 잘 유지하는 것이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과도 잘 지내기가 어려운데 지역 기반의 공동체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삶을 꾸릴 수 있을까 정말 놀랍습니다. 노하우가 있다면 알고 싶어요.

Q. 공동체를 지속할 수 있는 노하우는?

제환정 네 저도 공동체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최선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내가 어떤

공동체와 작업을 할 때, 그 작업이 나의 태도, 삶의 방식, 자유로움 등에 영향을 준다면 예술가로서 공동체 안에서 선택하거나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성재 예술치유와 관련해서 늘 떠올리는 것은 ‘지속성’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재단이나 국가의 지원없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예술치유의 형태는 무엇이란 말이지요. 어쩌면 저는 예술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술치유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만 되야 한다는 마음을 굳히는 자리였습니다. 이토록 여러 곳에서 공동체 관념을 갖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확장되기 어려운지도 궁금합니다.

조현 인류는 수백만 년 동안 공동체 생활을 지속해왔죠. 다만 4-50년 만에 급격하게 공동체가 무너져 버려서 문제가 생겼지요. 물질적인 성취도 필요하지만 인간관계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간들은 공동체가 무너진 뒤에 깨닫게 됩니다. 사람과의 만남과 헤어짐이 실패가 아니듯이 공동체의 합산과 해산도 실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민수 공동체로 살아가기 전에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계속 만나게 되기도 했었고요. 요즘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 공동체를 꾸린다고 했을 때 상대방에게 있을 ‘내가 싫어할 부분’을 먼저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상대의 싫은 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공동체로 살아가 수 있는 규칙이 생기겠지요. 잘 운영되고 있는 공동체를 보면 얼굴 표정이 고요하고 행복합니다. 그런 공동체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어떻게 됐든 함께 살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갈등해결의 핵심은 바로 ‘공감’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죠.

최선영 제가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적인 의미를 물어보셨는데요. 타인의 삶에 어떤 흔적을 남긴 것만으로 미련하고 답답하지만 저는 언제나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술 자체는 사실 사회에서 쓸모없는 행위들의 총집합인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이 나름대로 가치있을 뿐이죠. 요즘은 장애인 예술을 여러 의미로 해석해주지만, 제가 대학교 때부터 관심을 뒀던 프랑스의 아르 브뤼(Art Brut)¹나 아웃사이드 아트(Outsider Art)²로 소개되는 것들은 아름다운 예술은 아닙니다. 우울하고, 인간의 바닥을 드러내는

1 다듬지 않은 거친 형태의 미술이라는 뜻으로 1945년 프랑스의 화가 장 뒤뷔페(Jean Dubuffet)가 만들어낸 용어이다.

2 미술사에 있어서는 주류를 이루는 흐름과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경향을 통칭하는 폭넓은 개념이다.

작품들이었고 저는 그점이 좋았습니다. 슬픈 영화를 볼 때 오히려 더
치유된다는 느낌을 받는 것처럼요. 어떤 단체 혹은 공동체에서 작업을
하면서 좋았던 것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르고, 이상하지 않다고
여겨졌기 때문이고 그 자체로 존중받았기에 덜 외로웠단 겁니다.
쓸모없지만 이런 것들을 좋아할 수 있지라고 생각해 주는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이죠.

플로어토론1 저는 청각 장애인과 함께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과 연계된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태원에 살고 있는데 지역 특성상
문화가 섞여 있어서 더욱 융합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민수, 최선영 선생님께서는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고 그것들을 헤쳐나간 노하우가 있다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박민수 저 또한 3-4년 차부터 버거웠습니다. 소통이 어렵다보니
서로에 관한 불편감이 쌓이고, 저에게 공격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제 입장에서는 당신들에게 선의와 친절을 베풀었는데 이렇게
공격받아야 하나 싶어서 마음이 힘들어졌어요. 이런 일을 몇 번 겪고
나니 저도 가슴이 벌렁거리고 통제가 안 되었어요. 한 반년 가량
불면증을 앓기도 했었죠. 하지만 7년이나 버티게 됐습니다. 도망갈까
생각했지만 용기도 없었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사이에
좋은 경험을 남기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버티다 보니
8년차부터는 좋아지더라고요.

김찬호 버티니까 그분들이 변하던가요?

박민수 네. 같이 살고 싶으니까요. 같이 살고 싶으니까 공부하고,
공부한 만큼 사람은 변해요.

최선영 저도 당연히 어려워요. 그런 부분은 공동체 이전에
관계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체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는 규모에 관해 관심이 좀 있어요. 저는 대표이다
보니, 사람들의 숫자에 항상 신경을 써요. 너무 늘어나면
마음을 다 쓸 수 없고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꼭 문제가
생기거든요. 제 페이스 내에서 마음을 다 할 수 있는 규모로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도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플로어토론2 저는 예술기반 심리치료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박민수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공동체의 규모에 관해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리더의 역량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공동체가 지속되는 가장 큰 원동력은 즐거움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즐거움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애착이 회복이 되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자본의 논리와 전혀 맞지 않는 것인데, 여전히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의 공동체
규모가 좋을까요? 한 건물 안에 여러
Q. 이 시대에 맞는
공동체의 형태는
무엇인가?
가정이 있는 경우 이것이 오래도록 가다
보면 가정 안에서 겪는 문제들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박민수 만일 공동체를 시작하신다고 하면 시작은 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우선은 좋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5명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다섯 명끼리도 가족 이상의 친밀감을
형성하려면 시간이 꽤 필요합니다. 단기간에 승부를 보려고
하면 필패하죠. 소수의 사람들과 넉넉하게 시간을 두고
친밀감을 다져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공동체는 커져가는데
특정한 누군가와 계속 부딪힌다면 간헐적으로 해체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떠나는 것에
관해 크게 마음을 쓰지 않는 것 또한 공동체를 운영하는
하나의 노하우입니다. 공동체가 탄탄하게 꾸려지면 거꾸로
가족의 문제가 없어집니다. 따로 살 때는 문제가 많거든요.
부부싸움을 했던 커플이 있는데 들어와서는 부부싸움을 거의
안 해요.

김찬호 서울예술치유 네트워크라는 이름아래 계속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 무엇이 치유
되어야 할까? 저 또한 자문하며 참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체적인 접근으로 예술을
다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오신 일과 고민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더욱 확장 되길 바랍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100

4차 콜로키움

사회적 트라우마와 예술치유

2019.11.22. (금) 14:30-18:00

북합문화공간 공간성수

모더레이터

제환정(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객원교수)

발제자

권승희(상담심리학 박사)

고주영(공연예술 독립프로듀서)

장은정(장은정무용단 대표)

토론자

박은선(명지대학교 예술심리치료학과 교수)

한영경(서울시심리지원 동북센터 팀장)

제환정 안녕하세요. 서울예술치유 네트워크 마지막 콜로키움입니다.
오늘은 '트라우마'를 주제로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먼저
권승희 박사님께서 '트라우마가 일상이 된 사회에서 생각해보는
트라우마의 개념과 치유'에 관해 발제해주시겠습니다.

102

103



4차 콜로키움

사회적 트라우마와 예술치유

권승희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미국 공인 심리학자

현) You&Me 심리상담연구소 부소장

전)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Counselor Faculty

역서: <트라우마와 기억>



104

105

트라우마가 일상이 된 사회에서 생각해 보는 트라우마의 개념과 치유

안녕하세요? 유앤미 심리상담연구소에서 상담하고 있는 권승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심리적으로 흔들렸을 때, 그 흔들린 균형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무언가가 있나요? 그 무언가는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나 공간(혹은 그 대상이나 공간의 이미지)일 수도 있고,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노래 한 곡 일 수도 있고 혹은 긴장되어 나도 모르게 굳어 있던 내 몸을 자유롭게 움직여 보는 것과 같은 신체적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무언가가 떠올랐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진 자원입니다.

트라우마 생존자들은 마치 닻을 내리지 못하는 배처럼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표류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적절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장기간 트라우마를 반복적으로 경험한 분들에게는 자원을 발견하고 개발할 기회가 턱없이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살면서 자원을 찾을 충분한 기회가 있었지만, 트라우마 사건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이때까지 갖고 있던 자원으로는 균형을 회복하지 못하거나 원래 갖고 있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마비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 더 설명하겠지만 트라우마의 치유에 있어서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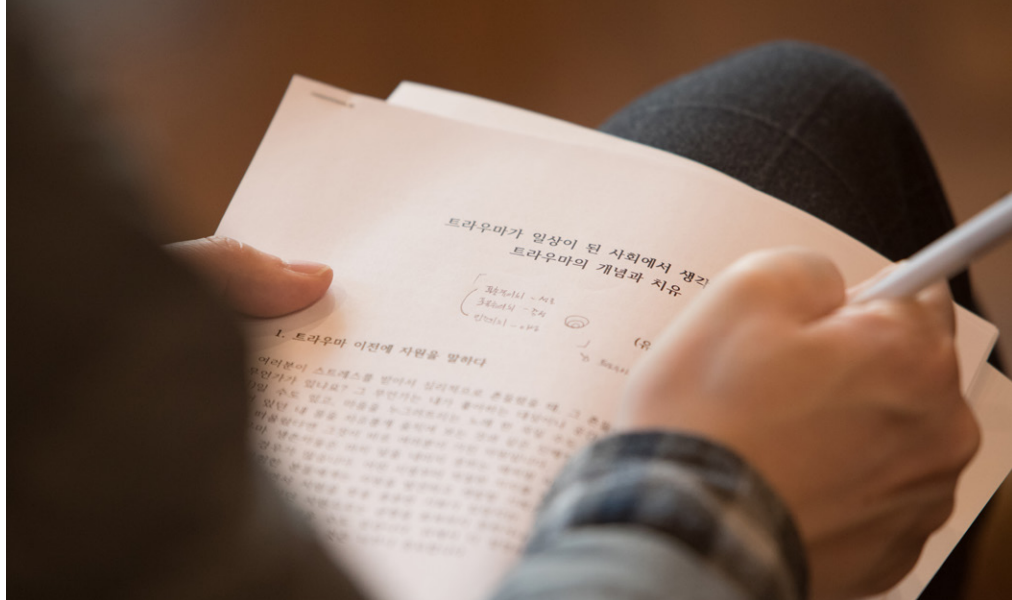
트라우마란 무엇일까요? 예전과는 달리 요즘은 트라우마란 용어 자체가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직업의 특성상 트라우마라는 말을 많이 듣고 생각하게 되지만, 제가 상담자가 아닌 자리에서도 “그게 나한테는 트라우마였어” “이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아”와 같은 말들을 상당히 자주 듣게 됩니다. 이제는

관련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트라우마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주 듣게 된 말, 트라우마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역사에는 늘 트라우마가 있어 왔지만, 사실 심리학이나 관련 분야에서 트라우마를 개별적인 주제로 인식하고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트라우마라고 하면 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를 떠올렸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죽음, 심각한 신체적 상해, 성폭력 등의 위협에 노출되고 난 후유증으로 평소처럼 생활하는 데에 커다란 어려움이 생긴 상태를 말하는데, 침습적 사고, 회피, 인지적 변화, 부정적인 정서 등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트라우마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연구와 상담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전쟁과 같은 거대한 사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이 심각한 트라우마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동일한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트라우마로 남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취약한 지점도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그런 일이 무슨 트라우마가 된다고 그래?”라고 말하는 것은 선분은 판단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트라우마를 사건의 특성이나 강도만으로는 규정할 수 없고, 그 사건을 겪은 개개인의 반응과 경험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신체적 외상과는 달리 심리적인 상처는 MRI와 같은 정교한 의학 기술로도 읽을 수 없다보니 정확히 무엇이 트라우마인지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겪은 사람이 생명 혹은 신체적, 정신적 온전함에 위협을 느꼈으며, 평소 하던 방식으로 대처하거나 극복할 수 없었던 압도적인 사건을 트라우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트라우마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고 신경 생물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서, 트라우마 치유에 접근하는 방식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심리치료에서는 내담자가 트라우마 사건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그 당시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트라우마를 기억하고 말하는 과정에서 찾은 새로운 통찰, 의미, 혹은 정서적인 카타르시스가 치유의 핵심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트라우마 사건에 대해서 성찰하고 의미를 찾는 것은 트라우마 치유에서 여전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이전의 치료 방식과 크게 달라진 점은 이제는 트라우마 치유에 단계적으로 접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담자를 만나자마자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으로 뛰어들기 전에, 내담자의 몸과 마음이 트라우마라는 압도적인 사건을 다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준비를 돕는 안정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만일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준비 운동, 수영하는 방법에 대한 트레이닝, 구명조끼와 같은 도구를 제공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일단 물에 들어가야 한다고 등을 떠민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트라우마를 겪었던 당시의 정서적, 신체적 반응을 다시 경험하고 더 심각한 고통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안정화 작업은 트라우마 생존자가 물에 안전하게 들어갔다 나오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점검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정화 없이는 트라우마 기억에 대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트라우마 반응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정화는

트라우마 치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 기억과 그에 관련된 인지 및 정서의 탐색, 그리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통찰과 의미를 찾아가는 것은 충분한 안정화 작업을 거친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몸은 기억한다〉. 이것은 유명한 트라우마 전문가인 베셀 반 데어 코크(Bessel van der Kolk)의 책 제목입니다. 몸이 기억한다니 무슨 말일까요? 몸과 마음의 연결성은 심리치료 전반에 중요한 화두가 되었지만, 트라우마 치유에 있어서는 몸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사람의 뇌는 세 부분-본능적인 뇌, 감정적인 뇌, 이성적인 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로 떠올리는 것은 이성적인 뇌입니다. 우리가 퀴즈 프로그램을 보면서 문제를 풀거나, 어제 읽은 책의 내용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성적인 뇌 덕분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닥쳤다면,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에너지는 생존이라는 목표에 맞춰집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을 피해 도망을 가는 것과

108

같은 행동이 요구되고, 이런 행동을 관장하는 것은 본능적인 뇌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이성적인 뇌는 본능적인 뇌가 더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잠시 멈춘 듯한 기능 정지 상태가 됩니다. 트라우마 생존자들이 트라우마 당시의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기억하거나 서술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사건 당시에 이성적인 뇌가 평소처럼 기능하지 않았다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 정지 상태였던 이성적인 뇌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트라우마 당시의 정황에 대한 기억이 희미한 생존자가 사건 현장에서 들었던 것과 비슷한 소리가 났을 때, 갑자기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도망가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끼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 생존자가 ‘지금 나는 안전한 공간에 있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와 같은 일상적 자극에 흔들리며 극심한 불안울 느낀다면, 그것은 생존자의 몸이 그 소리를 위험 신호로 인식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라우마에 대한 경험이 상당 부분 몸으로 기억되고 저장되기 때문에, 안정화 작업은 몸으로 느끼는 안전하다는 감각 없이는 완성되기 힘듭니다. 따라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감정이나 생각뿐만 아니라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에 대해 물어보는 것은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현재 트라우마의 심리치료에서는 트라우마 경험이 내담자의 몸에 어떻게 각인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고 신체적으로 활성화된 내담자가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작업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예술을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하거나 치유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예술을 통한 치유라고 하면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분명 예술을 통해 경험하는 카타르시스는 그 나름의 역할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트라우마의 치유에서 자원 개발과 안정화 작업의 중요성을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카타르시스 경험보다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술이 자원으로써 품고 있는 힘과 가능성입니다.

트라우마 치유에 있어서 예술을 생각하면 저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진자 추가 좌우를 왔다 갔다 하며 움직이는 이미지입니다. 트라우마에 대한 대표적 신체적 접근 중 하나인

109



SE(Somatic Experiencing)의 창시자인 피터 르빈(Peter Levine)은 그의 이론에서 진자 움직임(pendulation)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이전의 많은 이론가들이 트라우마 기억에 가급적 빠르고 깊게 들어가는 것을 추구한 것과는 달리, 르빈은 트라우마 기억을 안전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마치 진자 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트라우마 경험, 그리고 그와는 상반되는(즉, 안전하고 자원이 되는) 경험 사이를 오가며 수위 조절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만일 자원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트라우마 기억에만 머문다면, 트라우마 생존자들은 트라우마 기억을 반복하면서 그 기억이 야기하는 고통에 더 고착되어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트라우마 사건 이후로 모든 것이 무의미하거나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생존자에게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거나 희망을 가지라는 말은 그것이 선의의 조언이라 할지라도 공허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상담자와 같은 전문가에게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열 마디 조언이나 분석보다 생존자가 오감을 통해 신체적으로 무언가 긍정적인 느낌에 접촉해 보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개입이 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 사건 이전에 자원이 충분했던 사람이라면, 예전에 자원이 되어 주었던 경험을 떠올려 보거나 비슷한 경험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때까지 살아온 과정이 트라우마의 연속이었거나 트라우마 사건을 겪으면서 원래 자원이라고 믿었던 대상이 더 이상 자원이 아니게 되어 버렸다면, 스스로의 경험 안에서 자원을 찾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예술 작품이 제공하는 경험을 통해 자원을 발굴할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술적 자극과 상상력이 자원으로서 품고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환정 예술가의 직관으로 활동하는 직관이 많이 강조되고 예술가의 겹이 얼마나 가능성이 무궁무진한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하게 되고요. 동시에 예술가에게도 자기돌봄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술지망생들과 함께 있어서 그런지 이 무한경쟁 시대에 경쟁의식을 많이 내면화 하다 보니 마음이 아픈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케이스 스터디를 다음 두 분에게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2

트라우마에 다가가는 기획

113

안녕하세요. 저는 공연예술을 기획하는 고주영입니다. 사회적 트라우마와 제가 해온 작업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절 불러주신 것 같아요. 오늘 발표할 사례들은 세월호, 젠더와 관련있는 작업과 그 과정입니다. 실제로 저 또한 기획 단계에서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때의 트라우마는 개개인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트라우마가 아닌, 집단적 트라우마를 지칭합니다.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을 통해 국민 모두가 경험한 트라우마 같은 것 말이지요. 제가 말하는 트라우마를 다루는 작업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국가나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발생하게 된 폭력과 그 폭력의 피해자가 겪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은 불공정한 상황을 연속적으로 경험하게 되거나 권리를 침해당하는 상황에 계속 노출되는 것들도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요소입니다.

저는 법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제도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소수자 혹은 배제된 사람들과 연대를 표하는 방식으로 이 트라우마와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극하는 사람들이 연극을 통해서, 자기 상처에 관해 이야기해주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연대감, 유대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안산순례길>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1년 후 2015년부터 매년 다섯 차례 진행한 공연입니다. 이것을 처음 기획하게 된 것은 2014년 그날 이후, 굉장히 다양한 공연과 미술 작품으로 세월호 사건이 다루어졌음에도, 방식이 제한적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가족의 입장을 연기하거나, 무대에서

오열하거나, 바다로 침몰한다는 식의 재현이 많았는데 그런 식의 재현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월호의 직접 피해자가 아닌 우리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세월호 참사를 다루는 이야기가 무엇일지 동료들과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부모님과 가족들이 받은 고통, 피해자들이 경험한 트라우마에는 발끝도 못 미치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 몸을 고통스럽게 만들자는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산을 매년 7시간을 걷고, 퍼포먼스를 보거나 참여하면서 각자가 세월호를 떠올리고 생각하게 하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주체가 되는 것은 '안산순례길 개척위원회'인데 특정한 극단은 아니고 30~40명 정도의 예술가들이 콜렉티브를 이룬 형태의 모임입니다. 2015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걷는 것으로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음을 보여주겠다는 단순한 의도였습니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와 파트너십을 맺어 작업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시작할 당시엔 5년이 지난 지금도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란 생각을 하지 않았었고요. 이들의 슬픔이 단순한 슬픔이 아닌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그렇게 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실제로 안산이라는 도시는 우리나라 근대 개발 정책의 상징같은 곳이에요. 도시계획, 주거계획 등이 박정희 시대의 가치를

114



〈안산순례길2016〉 촬영: 박상혁 ©안산순례길개척위원회

115

그대로 반영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과관계에 주목하니 세월호 사건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2년차가 되자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느끼면서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국가적인 참사에 대해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국가적인 참사 속에서 개인의 존재는 무엇인가? 2년차에는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은 가족을 만나서 희생자가 된 학생들이 걸었던 길을 순례길에 포함시켰습니다. 3년차가 될 무렵 촛불항쟁이 시작 되었습니다. 세월호는 박근혜 정부의 크나큰 실수이지만 여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여, 세월호 그 자체를 정확히 다시 보자는 의미로 '세월호'를 주제로 작업했습니다. 안산이 바다와 접해있어서, 아이들을 보냈던 바다까지 가보자는 콘셉트로 진행했습니다. 사진 속의 검은 우산은 저희 순례의 시그니처입니다.

2018년은 4년차가 되었던 해이고, 세월호의 기억을 지우려는 시도들이 너무나 명백해졌던 때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죄책감도 의심도 없었던 상황이 됐어요. 올해는 구체적으로 생명안전공원의 의의에 관해 퍼포먼스를 기획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안전공원을 지지한다는 의미로요.



〈안산순례길2016〉 촬영: 박상혁 ©안산순례길개척위원회



영국계 예술가들
안산역에서

부모나 가족의 감정을 미루어 짐작하고 동화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결로 세월호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안산순례길> 작업의 가장 큰 계기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산이라는 도시를 세월호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이런 작업이 정말 진짜일까 스스로 의심했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5년 정도 시간이 지나자 희생자 가족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부터 당사자들을 모실 수도 있었지만, 우리 사이 거리가 점점 줄어드는 과정 자체가 간접적인 피해자로서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희가 시도한 연대의 움직임에 희생자 가족들이 신뢰를 보여주심으로써 오히려 저희가 치유 받았고 정당성을 부여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운동성이 강한 예술 기획을 하시는 박은선 리슨투더시티 디렉터님이 저에게 당사자와 비당사자로 나눌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당사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년에 걸쳐서 결국 일정 부분 당사자성을 확보했고, 이 기획이 좀 더 진정성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이슈는 젠더와 퀴어와 관련한 것입니다. <변칙 판타지>라는 작품은 2016년 초연했던 작품입니다. 여성들만 출연하여 연기하는 한국 전통 뮤지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여성국극'에 관한 작업입니다. 이 작품에는 실제로 여성국극의 남자 역할 배우(남역 배우)를 꿈꾸는 40세 정도의 여성 배우가 등장해 그 자신의 일기, 독백으로 작품이 구성합니다. 이 배우는 남자역할을 하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 남성이라는 성별이 주어졌으나 게이로서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같이 무대에서 만나 노래하고 춤추는, 무대에서만 가능한 판타지를 만들어낸 작품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해서 대만, 인도, 일본을 다니며 여성국극 남역배우와 각국의 게이합창단이 함께 만들었고, 각 사회가 가지고 있는 소수자 이슈를 무대를 통해서 전달하고 확장했습니다. 사실 이런 무대는 출연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큰 결심입니다. 관객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실천적 요소도 있는 공연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대만 공연입니다.



영국계 예술가들
(변칙 판타지) (2016) © 남산예술센터



〈변칙 판타지, 대만판〉(2017) ©Taipei Biennial2016



〈변칙 판타지, 대만판〉(2017) ©Taipei Biennial2016

당시 대만은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법률이 입안이 되어서 축제 분위기 속에서 공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본, 인도, 한국팀과의 교토 공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 공연을 준비하는 기획자로서 유념했던 것은 성소수자의 이슈를 다루겠다고 해서, 바로 그들을 만나 작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연출가가 가지고 있는 유대감과 신뢰를 통해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의도하는 공연으로 끌고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 노래를 엮어서 무대를 구성했습니다.

〈래러미 프로젝트〉는 인터뷰집처럼 구성된, 소위 ‘버베이텀 연극’(기록극)의 희곡을 한국에서 공연한 작품입니다. 동성애자 살해라는 실제로 일어난 중오 범죄를 둘러싸고 동성애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시민들의 인터뷰가 담겨있어요. 미국 작품을 2019년 서울에서 공연하기로 하면서, 어떤 콘셉트를 가져야 할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상황을 전달하거나 미국 사람들을 연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방식으로 한국에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작품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대학로에 레인보우 플래그를 건 것은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대목입니다. 배우는 연기자가 아니라 전달자가 되어야 했고, 연기술이라던지 화술, 언어 구사 방식 등을 모두 고쳤습니다. 결과적으로 〈래러미 프로젝트〉는 지금 한국 사회에 있는 관객들에게 배우라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공연되었습니다. 기획자로서 당연히 이 공연은 누가 보면 좋을지 고민합니다. 저는 〈래러미 프로젝트〉의 기획은 물론,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도 역시 ‘당신들과 연대한다, 당신들을 지지한다’는 의도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치유든, 교육이든 예술은 사실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니고 여러 사회적 활동 중 하나일 뿐이며 예술 또한 여러 직업 중 하나라는 겁니다. 저는 공연예술이라는 매체에 종사하는 사람이지만, 굉장히 작은 매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매체에 종사하는 직업인이자 시민으로서 어떤 것을 해야 의미있고, 진실한 것일까요? 이런 생각으로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환정 감사합니다. 치유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술가로서, 시민으로서의 연대를 표현하고 싶었다라는 말씀이 많이 와 닿아요. 한 인간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사실은 예술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성”이라는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장은정

장은정 무용단 대표

프로젝트 그룹 '춤 추는 여자들' 대표

한국현대무용진흥회 이사

김기인 춤 문화재단 이사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직접 만드는 문화공연 '마음대로, 점프!' 프로젝트 참여

한국 평론가회 춤 비평가상 수상

이사도라 무용예술상 수상



120

121

몸, 춤, 삶 '같이의 가치' 당신은 지금 바비레타에 살고 있군요: 마음대로, 점프! 사례를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춤추는 여자 장은정입니다. 저 역시도 세월호 사건 이후 인생이 많이 바뀌었어요. 스스로 기성세대라 생각하게 되면서 자괴감, 비겁함 등의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더라고요. 단원고 옆 학교에 출강하고 있어서 더욱 선명하고 직접적인 느낌을 경험한 듯 합니다. 앞서 고주영 기획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과연 이 사회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어야 할까, 나의 아픔이나 상처는 어떻게 만져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떠오른 화두는 '용기'였습니다. 저는 춤을 만났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그게 거창한 작업이 아니길 바랐습니다. 예술가가 아니라 예술을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30여 년 가까이 무대작업을 해오며, 어느 틈엔가 소모적 환경에 지쳐가고 있을 무렵 이 시대 최고의 화두인 '소통'에 대해 좀 더 진솔하게 바닥부터 고민해 봐야겠다는, 일정부분 책임감과 소명감이 섞인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예술성과 대중성의 묘한 상업적 구분 속에서 가당치 않은 우월감과 더욱 가당치 않은 적대감을 동시에 들이밀며 오히려 작업자들이 소통을 거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자기반성적 시점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겨집니다.

춤이 가지는 순기능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술의 진지함과 중요성을 모르는 바 아니나, 그것들을 놓치지 않으면서 좀 더 가깝고 좀 더 친근하게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와 만남이 6년 여의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비로소 프로젝트 그룹 ‘춤추는 여자들’이 결성되었습니다. 우리는 ‘비움’과 ‘내려놓음’ 그리고 ‘겸손’과 ‘직면’의 숙제를 안고, 춤의 순기능을 본능적으로 감지하여 춤의 길로 들어섰던 그 처음을 되새기며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전부터 주변에 마음 맞는 친구들과 춤, 무용이 너무 멀리 있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저 높은 무대에서 멀리 보이는 고고한 예술이 아니라, 관객과 진실로 나눌 수 있는 예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사우나에서 친구를 벌거벗고 만나는 것처럼 만나보자는 의도에서 기획한 프로젝트가 <당신은 지금 바비레파에 살고 있군요>입니다. 러시아에서는 늦여름에서 초가를 무렵으로 넘어가는 찬란한 계절을 ‘바비레파’라고 합니다. ‘바비레파’를 러시아어 말로 직역하면 ‘나비여름’ 더 친숙하게는 ‘인디언썸머’와 같은 의미입니다. 진짜 여름보다 정열적이고 아름다운 제 5의 계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비레파는 이러한 의미에서 젊었을 때보다 더 정열적이고 아름다운 중년여성을 칭하기도 합니다. 러시아에서 중년의 여성에게 “당신은 지금 바비레파에 살고 있군요.”하면, 이팔청춘이 아닐지라도 아주 화사하고 매력적인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최고의 극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일상에 지친 사람들을 바비레파에 초대하여 잊고 있었던 자신의 아름다움과 뜨거운 정열을 바비레파의 계절에서 찾아보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바비레파의 계절에 새롭게 만나는 나의 몸과 춤으로 못다한 나만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삶을 돌아보고자 하는 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프로젝트를 우리와 같은 또래 친구들과 해보고자 했으나 뚜껑을 열고 보니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에게 바비레파 같은 장소, 시간, 공간을 원하는 마음들이 있었는지 마구 요구가 터져나왔습니다.

<당신은 지금 바비레파에 살고 있군요>는 관객참여형 공연입니다. 출연자가 아니라 관객분들이 완성하는 공연인 셈이죠. 처음에는 저희도 어떻게 갈지 잘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관객분들을 만나면서 오히려 저희가 하나하나씩 배우게 됐어요. 그러면서 함께 만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게 됐습니다. 3명의 무용수와 1명의 연극배우, 그리고 1명의 연주자가 이끌어가는 이 프로젝트는 이와 같이 관객들에게 자신의 삶에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질문하고 함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것과 대답하는 방식은 모두 ‘몸’과 ‘춤’을 매개로 이루어져요. 관객과의 소통에 매우 노련한 5명의 공연자들은 관객들이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게 작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춤공연과는 달리, 관객이 수동적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차원을 넘어서 공연자들과 함께 노래하고, 이야기 나누고, 춤추는 적극적인 감상 경험을 나눕니다.

가장 첫 번째 작업은 2011년도에 열린 춘천 아트

페스티벌에서 선보였습니다. 10주년을 맞은 축제에서 춘천 시민들에게 그동안의 감사함을 돌려 드리겠다는 취지로 지원이 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춘천에 거주하는 20대 이상의 다양한 여성분들이 오셨어요. 이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50대의 여성이셨는데, 사회적 지위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워크숍을 막상 진행해보니, 너무나 우울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 분께서 공연의 주역을 맡게 되었는데, 공연 당일 이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집까지 찾아가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한 두 시간이나 흘러서 겨우 공연장에 온 그분은 남편에게 얻어 맞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차마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뛰쳐나가서 엉엉 울었어요. 다른 분들이 챙겨주고, 분장도 해줘서 공연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일년 후, 다시 그 공연장에 가게 되었는데, 누가 저에게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못 알아보았어요. 다시 보니 그 분이었어요. 그때 큰 충격을 받았죠. 우리가 하는 일이 뭔가 바꿀 수 있겠다는 마음의 계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바비레파에 살고 있군요〉는 하나의 장르에 고정되지 않고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매체들을 이용하여 관객들의 오감을 풍부하게 자극합니다. 또한 반드시 말로 건네야 할 깊이 있는 이야기를 통해 관객들의 사고를 깨우고,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무용장르를 견고하게 지키기보다는 주변의 장르들을 포용하여 보다 다채로운 공연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죠. 공연의 의미와 취지도 다름과 차이를 모두 감싸 안는 것에 있습니다.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들 뿐 아니라 찾아오는 관객들도 모두 저마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이 한 공간 안에 모여 서로의 몸을 알아차리고,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함께 한다는 것의 가치를 찾아가야 합니다. 또한 타인과의 춤경험을 통해 얻고 느끼는 새로운 가치가 공연장을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과 사회, 그리고 세상을 전염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초기에는 작업자들과 비슷한 연령대의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제작되었고 커뮤니티 아트를 표방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 눈을 마주치고 손을 잡고, 가능하다면 함께 춤추며 삶을 나누어보고자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저는 무용가로 춤을 추면서 예술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대명제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요원한 길이란 것을 동시에 많이 느껴왔습니다. 몸이 깨어나야 정신이 같이 깨어난다고, 춤추는 사람들은 경험으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생각을 반영한 프로젝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마음대로, 점프!〉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당신은 지금 바비레파에 살고 있군요〉를 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라는 단체를 알고 계신가요? 폭력 없는 세상, 성 평등한 사회를 위해 1983년 설립한 한국여성의전화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주여성문제 등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상담소와 쉼터 운영, 여성주의 가치를 확산하고 담론을 생산하며 나아가 성평등한 정책변화를 그 목표로 하고 있죠. 올해부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단체의 지원을 받게 되어, 그동안 이론적이고 물리적 지원에 그쳤던 것을 정서적인 것부터 다시 시작하는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이 단체에서는 가정폭력의 피해 여성들을 ‘생존자’라고 부릅니다.



사진 출처 한국여성의전화

2019년 봄, 단체는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서울경기권 거주 20대 이상 여성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 대상자를 모집하였고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직접 만드는 문화공연 프로젝트 <마음대로, 점프!>를 진행했습니다. 정서적 유대를 기반으로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립에 이르는 지난한 과정 중에 스스로를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된 것입니다.

<마음대로, 점프!>는 춤을 통한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입니다. 나의 역사가 고스란히 기억되어 있는 몸을 들여다보고, 그 몸과 얘기 나누며 상처를 쓰다듬고 어루만지며 무의식의 세계까지 각인된 깊은 트라우마를 대면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폭력으로 멎든 몸의 기억들을 벗겨내고, 내안에 존재하는 고유의 몸성, 치유를 가능케 하는 춤의 순기능을 경험하도록 하였습니다. 함께한 시간동안 기록으로 남은 이야기는 진솔한 작품이 되어 여성 인권 영화제 개막식 축하공연으로 초대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참여자들이 직접 가사를 붙여 만든 곡의 영상 작품입니다. 춤을 통해 깨어난 몸으로 깨어난 정신을 만나는 시간인 셈이죠. 음악을 통해 내 안의 무수한 이야기를 나만의 방식으로 풀어내어 솔로곡과 합창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 과정은 다큐멘터리로 촬영되어 제작되었는데요. 참여자들의 인터뷰와 과정 기록을 통해 용기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힘과 응원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참여자들이 남긴 후기입니다.

126



사진 출처 한국여성성인전화

127

사진 출처 한국여성성인전화



“나는 더 약한 나의 껍질을 벗기 위해 여기 참여했다. 그동안 오염물들을 많이 벗어났고, 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도 하는 중이다. 내게는 장애물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너무 소중하고 큰 깨달음이다. 내가 계속 위축되어 있던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조금씩 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는 예전에 했던 나쁜 생각들을 잘 정리하고, 뿌리고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누워서 저녁에 생각할 때면 지금 잘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선생님은 표현만 하게 해줬을 뿐이라고 하지만, 나를 편안하게 해주셨던 거다. 그게 쌓일수록 신체적 변화, 의식의 변화 같은 게 생긴다. 그걸 바꿔서 나의 에너지로 잘 축적해서 잘 살고 싶다.”

“숨을 쉬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느낄 수 있다. 점프에서 호흡을 통해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이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오늘도 여기 오는 길에, 프로그램을 하면서 호흡을 통해 내가 누구와 같이 어디에 있는지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공통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이렇게 안전한 상황에서 부대끼 적이 없다. 말없이 마음을 교감할 수 있는 상황. 백두산 천지를 다녀온 것보다 더 큰 느낌. 내 몸에 귀한 느낌”

저는 30년 이상 몸과 마음에 깊이 뿌리내린 관습을 탈피하고 좀 더 자유롭고 순수하게 춤추며 소통하기 위해 깊이 고민해왔습니다. 그렇지만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순수한 몸짓들을 만나게 되었고, 내 안에 견고했던 무언가가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바비레파’의 ‘아마추어’들을 예술 공간 안에서 만나며 변화하였고, 그들 역시 직간접적인 예술체험을 통해 그들의 삶의 질이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형식이나 조건의 제한도 문제되지 않으며 눈을 마주치고, 웃고, 손을 잡고, 함께 춤을 추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대로, 점프!〉의 경우 그 가치가 더욱 선명하게 다가온다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저마다 다른 정체성과 사고를 지녔지만 그들에게는 세상 누구와도 공유하기 힘든 폭력의 상처가 공통분모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고스란히 기억된 고통의 기억들은 누구와의 신체접촉도 불안하게 하였으며 스스로도 그 상흔을 어루만질 수조차 없는 무력함에 빠져있었어요. 그리고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내 몸을 쓰다듬고, 내 몸과 얘기하고 나아가 같은 아픔을 지닌 다른 몸들과 만나고 안아주는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며 조금씩 온전한 나의 몸으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무용가로서 춤의 순기능, 그 기적과도 같은 순간을 함께 나누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두 프로젝트를 통해 깨달은 것은 ‘예술교육’이나 ‘가르친다’는 생각이 아니라 ‘나누며 함께 한다’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몸에서부터 춤으로 효과적으로 전달된다고 믿기 때문이죠. 자원이 되어야 할 대상들에게 상처받고, 고통받고, 폭력을 당한 여러 기억을 가진 사람들의 기억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서로 용기를 내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같이의 가치’입니다. 가르치지 말고 서로 안내하고 도와주고 지지하는 그런 예술치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과 질의응답

제환정 이 콜로키움의 마지막 토론 시간입니다. 플로어와 토론자분들께 자유롭게 질문하고 의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영경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심리지원 동북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상심리를 전공하였고요. 임상심리사는 정신과에서 일하는 심리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공부를 시작하던 당시에는 트라우마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일반화된 용어지요. 성수대교 사건 등도 있고, 세월호 사건도 터지면서 국민이 집단적인 우울을 겪게 된 듯 합니다. 이 일을 하는 입장에서 1:1로 찾아오는 분들은 치유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우리 국민, 집단적인 우울이나 상처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발제해 주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술이 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두가지인데 안산순례길

Q. 사회적 트라우마에 대한 예술치유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가?

퍼포먼스는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이죠. 참여를 신청한 소수가 아니면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예술가로서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다시 말해서 좀 더 폭넓게 시민에게 예술치유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쭙보고 싶고요. 공연이나 사회적 퍼포먼스로서의 치유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지속성은 어느정도인지 과학적 검증 등이 가능할까요?

130

131

고주영 공연예술 매체의 한계는 너무나 명확한 것이라 사실 이게 많은 전 국민을 위로할 수 있지 않다는 것은 이미 전제해두고 작업합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체는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음악이나 글이 그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산순례길>은 겨우 150명 정도가 함께 걷는 정도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그럼에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150명으로 시작했지만, 20명도 안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면서 시작했어요. 스스로 의지하면서 지속하는 것 또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 전체를 움직이는 예술 운동은 애초에 기대하지 않았어요.

장은정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에 대해 저도 고민이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춤을 추고 만드는 일은 정서적이고 직관적인 작업이라 생각해서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오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부적으로는 1년 동안 몇 번의 공연을 하고, 몇 명의 관객이 참여했고, 그 이후에 그 공연에 참여한 사람들이 꾸준히 네트워크를 이어가는지? 정도가 결과의 기준인 듯 합니다. 저희는 일단 이것에도 연연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 결과치를 가지고 예술지원, 사업 보조 등이 이뤄지긴 하지만 10년 쯤 이어오다보니 별다른 홍보가 필요없어 졌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가치가 스며들었다는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더 확장시킬 수 있을까 고민은 해야한다고 봐요.

제환정 두 분 답변 감사합니다. 예술치유 평가와 관련된 이슈는 끊임없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혹시 앞에 계신 세 분의 발제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으시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로어질문1 예술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예술가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아왔고, 예술치유를 하고자 했을 때는 그것을 바탕으로 커리큘럼을 짜오시겠지요? 그랬을 때 내가

학습한 것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예술이라는 도구를 통해 치유의 과정을 만들어가시는지 궁금해요.

장은정 ‘관객참여형 감성 치유 프로젝트’라는 타이틀을 달았을 때, 테라피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었어요. 특히 첫 해에는요. 이론 공부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론과 현장이 만났을 때 시너지가 일어날 거란 조언을 주셨습니다. 제 주변에 무용치료를 공부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아주 체계적이지는 않아도, 케이스별로 도움을 많이 받았죠. 현장은 이론에 도움을 주고, 이론은 현장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3년 정도 흘렀을 때는 감정적으로 이입되는 부분 등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왜 이것을 하고 있나? 내가 이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습니다. 공부를 해야하나 고민도 했고요. 그때 저 스스로 세운 원칙은 ‘내 기준, 내 생각대로 끌고 가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늘 주위의 누군가에게, 공부하는 사람들, 업계 전문가들에게 끊임없이 피드백을 받자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예술의 본질은 기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참여자들에게, 관객에게 배워온 것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더 큰 재산인 듯 합니다.

플로어질문2 저는 권승희 박사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상담심리학을 전공하셨는데, 현장에서 예술치유와 접목한

Q. 예술치유의 실질적인 방법과 도구는 무엇인가?

상담심리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도
말씀해주세요.

권승희 저는 언어로 치료해 왔던 사람인데, 이제는 정확히 예술 치료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몸’을 통한 치료를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 생존자들은 스스로 자책하고 비난하는 일이 많습니다. 인지 행동치료에서 말하는 비합리적 사고라든가 사고

체계를 수정하는 작업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오감으로 할수 있는 것들을 통한 자원개발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내담자들에게 살면서 나에게 따뜻했던 사람, 내 존재를 있는 그 자체로 받아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일부는 ‘돌아가신 할머니’ 와 같은 대상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자원이 되는 사람이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이 활용하게 되는 것이 예술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예술치유와 심리치료가 접목, 협업된 사례가 많진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좀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플로어질문3 저는 15년 동안 무용동작치료사로 살고 있는 한지영입니다. 아까 무용치료가 효과가 있나, 통계가 있나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같은 질문을 10년 전에도 들었어요. 지금은 논문들이 존재하죠. 저 또한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였는데 말하자면 무용치료를 장기간 받으면서 회복된 생존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트라우마가 있어도 이 사람이 건강한 기능이 있고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치료를 할 때 이들을 약한 사람, 피해자, 돌봐야 될 사람이라며 대하는 것이 역할놀이에 불과할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치유경험을 통해 얻어낸 자원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우리가 같이 한 프로그램 1시간은 좋았지만 추후에 팔로우업이 있어야 할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장은정 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 여성들을 처음 만나게 됐어요. 이제 막 프로그램이 끝났는데 저희가 이번 달에 다시 모여요. 이 참가자분들이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 다음으로 계속 무언가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내 옆에 지금 쉼터에서 같이 살고 있는 피해 여성들에게 여기를 꼭 보내고 싶다, 그런 말들을 나누고 있어요. 이전에 <당신은 지금 바비레파에 살고 있군요>를 통해 춘천에서 만난 사람들은 지금까지 만나고 있어요. 별별 사연이 다 들어있었고요. 나는 압이다, 우리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다, 내 아이는 이렇다. 이분들은

무엇보다 지속적인 만남과 지지가 필요했어요. 몇 년동안 팀으로서 준 프로처럼 대외적인 활동도 하고있는데, 자기 자존감을 회복하고 몸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요. 마치 간증같은 것인데요. 저도 이들을 환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용가로서, 나 또한 이런 면이 제 안에 있을 거고요.

제환정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제자 분들께서 한 마디씩 남겨주시면 이 콜로키움이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고주영 공연이, 예술이 무엇이어야 할까? 혹은 기획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라는 고민들은 앞서 소개한 작품을 통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 역시 저에게도 큰 전환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고민하면서 작업을 했지만, 더 진지하게 예술 생태계 안에서, 사회 안에서 미약하게나마 할 수 있는 것들을 진지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은정 일련의 작업들을 통해서 나를 돌아 볼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주변을 좀 더 깊이 들여다 볼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또 내가 비겁하지 않게 항상은 아니더라도 꼭 말해야 할 때는 말을 하자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이 무용계라는 곳에서만 살아와서 ‘아니오’를 할 줄 몰랐거든요. ‘아니오’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저에게는 뿌듯한 변화예요.

권승희 오늘 사회적 트라우마를 얘기하고 있지만 상담자로서 저의 개입 대상은 개인인데, 공격을 받았을 때 개인이 그로 인한 상처를 어떻게 건강하게 표출하고 누구와 연대할 수 있을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예술치유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은가 하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오늘 발제해주신 선생님들이 소개한 예술 프로젝트에 대해 들으면서 연대하고, 공동체를 만들려는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러한 프로젝트에 참가한 분들이나

공감하게 된 분들에게 공동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는 수치로 환산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환정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서울예술치유 네트워크 4차 콜로키움을 마치겠습니다.

134

135

에필로그

서울예술치유 네트워크 운영단
최종 간담회

136

참여자

박은선(명지대학교 예술심리치료학과 교수)

제환정(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객원교수)

조현(한겨레신문 기자)

김찬호(성공회대학교 교수)

김수현(공간기획 2팀장), 신동석(서울예술치유허브 매니저)

이은미(공간기획 2팀 대리), 이재화(코디네이터)

138

1차 콜로키움

예술경험 과정이 중심이 되는 치유

139

김수현 서울예술치유 콜로키움에서 다루어진 내용 중에서 서울예술치유허브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설계해나가면 좋을지, 어떤 타 영역과 협력해나가는 것이 좋을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은선 작년에 서울예술치유허브에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를 했는데도 사업의 방향성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술경험 과정이 중심이 되는 치유라는 주제로 첫 번째 콜로키움이 시작되었고 배경이 대부분 예술치료사, 치료훈련 이런 개념을 가진 분들이 많이 참여하셨던 것 같아요. 콜로키움 초반에는 예술가나 예술행정가들이 많이 참석했고, 후반으로 갈수록 예술치료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총 4차에 걸친 콜로키움에서 다룬 주제들이 예술가보다는 예술치료사들의 현실적인 고민에 훨씬 더 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콜로키움 발제자 중 정은혜 선생님의 경우 예술과 치료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콜로키움에 참여했던 한 분이 제게 정은혜 선생님은 치료사보다 예술가에 가까운 분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든 생각이, 사람들은 예술과 치료를 구분하고 경계를 나누고 싶어하는구나 였어요. 이러한 배타성이 어떤 욕구와 관련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예술이 일상의 하나가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예술과 치료를 고유 영역과 다른 영역으로 구분하고
여전히 생산자와 소비자로 나누고 있지는 않은지 의구심이
들었어요.

김수현 여전히 배타적인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치료의 영역에서는
예술가의 예술 활동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콜로키움을 시작하게 된 계기 중 하나였어요. 예술가들이 치유의
대상을 만날 때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을지에 관한 대인관계 역량 등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정은혜 선생님의 발제 내용
중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모름을 따라가라”는 메시지였는데, 이 말은
결국 치유 대상자를 예술가와 동등하게 바라보고 “관계에 집중”하면서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예술작업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인지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될 때, 상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게
되겠죠. 사실 의학이나 심리학에서는 대상과 경계를 구분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술가들이 바라보는 것과 의사나 심리학자가
바라보는 것이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박은선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이 예술치료거든요? 그런
파트너쉽 없이 어떻게 가장 힘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
‘경계’라는 것은 말하자면 내담자와 개인적으로 연락 안
하는 것 같은 거겠죠. 내가 계속 관계 맺는 사람이라 한다면
가장 깊은 이야기를 하고 떠난다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의 경계를 말한 거죠. 그런데 예술가는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관계에서의 속성은 유사하나 그 이후
사귀의 속성이라 할까요? 저는 제 내담자를 사적으로는
전혀 안 만나요. 그렇다고 해서 그 경험에 경계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없는 제일 친밀한 상대 일 수 있죠. 또
하나, 예술치료가 자기의 문제를 남에게 뒤집어씌우지
않는 경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젠다를 가져와서 내담자의
문제가 무엇인지 볼 때는 내 아젠다와 내 욕구를 지우는
경계를 하라는 것. 치유의 속성은 치료사만 갖춰야 하는
게 아니라 대민(對民)을 하는 사람 누구나 갖춰야 해요.
사실 그런 면에서는 교사도 그렇고 지켜야 하는 경계가

140

141

윙통성이 있어요. 저희 예술치료사들은 내담자와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보거든요. 정은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다만 도식주의적(창조적 태도 없이 일정한
형식이나 틀에 기계적으로 맞추려는 경향) 태도에 대한
경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치유를 하던
아이를 친밀감 형성을 위해서 며칠 데리고 자겠다는 이런
건 안 하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것을 좋은 치료사라고
이야기 안 해요. 개인적인 경계를 지우는 것이 오용되는
것을 치료사들은 경계하거든요. 치료에 의존하게 된다면.
치료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 지침에 관한 것과 더 가까운
이야기라 할 수 있는데요. 평생 안 볼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치료 안에서 일어난 치유적 경험이 더 잘 살아요. 그런
관계적인 속성이 혹시 이해되세요?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길에서 우연히 저를 마주치면 상담을 그만두고 싶어 해요. 저
사람이 살아서 돌아다니는 사람이었다는 의식이 위험감을
주거든요.

김수현 발제자 중에서 1차 콜로키움의 정은혜 선생님, 4차
콜로키움의 장은정, 고주영 선생님이 언급하신 “태도”에 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네요. 당사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상대의 아픔에
공감하고자 하는 태도가 예술치유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환정 예술가의 자기 규정성 같은 경우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것을 찾기는 어렵고, 이야기해 볼 수는 있지만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확인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수현 예술치유를 처음 시작하는 예술가분들이 제환정 교수님께서
1차 콜로키움에서 발제해주신 네 가지 질문에 대해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 예술치유 사업과 연결을
지어 예술가가 자기 자신을 재인식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박은선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경계의 의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어요.

박은선 치료사들이 매뉴얼만으로 도식적으로 작업하는 것에 대한 경계죠. 진단하려 하지 마라, 판단을 뒤에 두고 사람을 만나라, 내담자를 타자화하지 않아야 한다 등 예술치료사들이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들이죠. 그런데 예술치유 사업을 지켜보다가 만난 한 예술가의 경우, 시민과 작업한 예술작업이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저작권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시민이 창작과정에서 작업한 모든 것들이 자기 예술의 확장이라고 보는 것이 저는 충격이었어요. 자기 예술을 실험하려 시민들을 만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예술가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았어요.

제환정 Dance for PD(Parkinson's Disease) 같은 경우 파킨슨 환자들에게 무용의 예술적 즐거움을 공유하려고 시작하였다가 부가적으로 의학적 치유까지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강사교육은 의료인이나 테라피스트가 아니라, 무용기반의 예술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처럼 예술가가 치료의 목적성보다 예술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두고 출발하는 것도 좋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좋은 예술적 경험안에는 공감, 연대, 치유, 감성 등 치유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계와 소유권에 대한 긴장보다 경계의 탐험자로서 갖는 느슨한 예술가의 정체성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는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142

2차 콜로키움 정신건강과 예술치유

143

제환정 ‘정신건강과 예술치유’는 세 분의 발제자가 굉장히 각각 관점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한 분은 의학적 관점에서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경계 사이의 회색 지대(Gray Zone)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고, 한 분은 기관과의 연계 지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는 예술가의 자기 돌봄에 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대상에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 정신건강의 대상에 대해 좀 더 경직되지 않은 접근이 필요해보여요. 치유대상이 보다 일상적이거나 임시적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컨대 서울예술치유허브에서 기관으로 치유예술가들을 파견하는 ‘사회적 예술치유랩’ 같은 경우 제가 현장에서 참관해보니까, ‘학교밖 청소년’에 자기 길을 찾아나선 청소년들부터 감호위탁을 받는 아이들까지 모두 학교밖이란 이름으로 치유의 대상이 됩니다. 과연 이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이들을 치유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가? 혹은 과연 예술치유가 사회적 처방인 건가? (보호교정시설 청소년의 경우) 너희는 잠재적 범죄자이기 때문에 처방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는 것이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인가? 아니면 치유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람들에게 한해 일시적이지만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치유가 이뤄져야 하는가? 그런 의문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예술치유에서는 일상성, 임시성의 이슈,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한시적으로 갖는 정서적 위기 상황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동시에 ‘사회적 예술치유 랩’ 같은 경우 기관 중심의 파견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박은선 그레이 존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삶의 질을 그래도 자신이 선택하는데, 정신적으로 고위험군에 속한 정말 아픈 사람들까지는 예술치료사의 활동 범주는 아닌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런 점에서는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낫다고 인식개선의 차원에서 했던 이야기가 거꾸로 낙인처럼 작용하는 때도 있어요. ADHD를 예로 들면 어린아이들 중에 좋아지는 아이들도 많고 어른 중에서도 많죠. 그런데 그것을 전수조사해서 치료를 안 받으면 안 되게끔 달달 묶는 거예요. 보육원, 학교 밖 청소년, 군대, 소방서 등 이런 곳들을 일방적으로 치료의 대상으로 보는 부분에서 예민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환정 개인이 자발적으로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예컨대 대안학교나 감호기관에 소속되어 치유프로그램에 마주하는 경우, 사회적으로는 치유일 수 있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치유”에 동의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거든요. 예술가 역시 과정의 동반자로서 자신의 역할과 활동의 목적성이 모호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예술적 경험안에 교육과 치유의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보니 예술가자신도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처럼 회색지대가 넓은 경우, 자발성에 대한 이슈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김수현 현재 재단 안에서 문화예술교육하고 치유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자신의 목소리를 찾게 하고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부분에서 미적 체험과 지향하는 바가 아주 비슷한데, 대상으로 봤을 때 예술교육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아요. 예술치유가 사실 예술교육과 차이가 있다기보다 ‘정신적으로 예방이 필요한 정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활동 프로그램’ 이렇게 넓게 정의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예술치유의 형태는 창작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자발성이라는 이슈는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신동석 이번 ‘사회적 예술치유 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재단에서 예술치유에 참여할 기관을 접촉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예술치유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아요. 학교에 시간이 필요하니 와서 해주세요, 하는 방식인 거죠. 참여하는 아이들도 신청을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 인원이 채워져야 하다 보니 담당자가 반강제로 넣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들이 힐링이 필요한 대상인가 하는 그런 물음은 남는 거죠.

박은선 괜찮아요. 자연 발생적인 게 가장 좋을테지만 동기유발도 중요하니까요. 예술가도 내가 예술이 좋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예술가의 작업실에 들어오면 거기에서부터 동기부여하고 끌고 가는 이런 과정도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예술가들의 일부는 예술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여기에 왔는데 아무도 안 하고 싶어 하네 라고 손 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치료를 받으려고 스스로 전화하고 찾아와도 아무 말도 하기 싫어하는 예도 있어요. 사람 심리가 그런데 그것만으로 자발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동기를 부여하고 꼬셔야 하는 거죠. 자발성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보호기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민한 대상층에는 좀 더 섬세한 배려를 가진 사람들이 가면 좋겠어요. 그런 아이들은 돌봄을 받아본 경험이 적고 자해의 경험도 많고 거식증도 너무 많거든요. 어른들이 너 말랐는데 왜 그러니 하면 입이 더욱 닫히는 거죠. 어른 중에서도 민감한 좋은 어른들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예술가들이 대상에 대해 잘 모르겠으면 그것을 공부하고 만나라는 거예요. 민감도나 이런 것이 아이들은 말 한마디에 감지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힘들 때 이런 방법도 있다고 알려줄 수 있어야 하는데 자살을 생각하는 아이에게 네가 죽으면 부모님이 얼마나 슬퍼하겠느냐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에게네 내가 어떠한 이야기도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게 하면 좋은 기회를 하나 잃어버리는 거죠.

김수현 민감도가 있는 대상은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치료를 한다든지
임상 심리학자를 만나야 하지 않을까요.

박은선 그런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라도 갖추는 게
중요해요.

김수현 2차 콜로키움을 보면 의학이나 심리학에서 중증환자를
대상으로도 지원액이 1인당 5천 원 정도밖에 안 된대요. 일반인
대상으로는 아예 없다고.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서울예술치유허브에서 내년에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것과
연결해서 정신 재활시설이 있는데 거기 예술가들이 와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박은선 거기 오시는 분들은 예술가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조현병 환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예술적인 사고를
하면 망상이 너무 커질 우려도 있어요.

김수현 김희태 선생님 같은 경우 예술치유 전문가들과 같이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에 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박은선 서울시 심리지원센터에서는 예술치료를 치유로
인정을 잘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거를 내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디어로 제안을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 실행단계가 되면 협력하기가 비교적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김수현 아니면 저희가 예산을 가져가서.

박은선 좋아요. 제가 생각한 것은 심리지원센터는
대기자가 많은 데 지원을 못 해주고 있으니 이 사람들을
서울예술치유허브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모객이
어렵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146

3차 콜로키움 공동체로 살아가기

이은미 3차 콜로키움의 주제를 재단의 사업 방향성과 연결짓기가
가장 어려웠어요. 공동체들은 이미 자발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공공의
영역이 어떤 부분을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박은선 콜로키움에서 본 공동체의 경우 대부분 공동 거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공동체는
어떻게 공동체를 영위해 나가는지 궁금해요.

147

조현 함께 사는 마을 공동체 뿐만 아니라 학교, 모임, 동창회 이런
것들까지 다 공동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책에 쓴 사례 중 하나가
과주 공방마을인데, KBS 다큐 3일에도 나왔어요. 제가 아는 분이
자궁 쪽에 문제가 생겨서 일을 쉬었는데 동네사람들이 탁구대
주변에서 너무나 재미있게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동아리 활동을 하며
너무 재미있게 놀다보니 병이 싹 나왔고요. 사회생활을 하며 항상
긴장모드로 있는데 동네에서는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평생 안 쓰던
근육을 쓰게 된거죠. 뭐든지 긴장감이 병을 유발하는데 전혀 써보지
않은 근육을 쓴 것이 치유가 되더라는 이야기죠.

대부분의 공동체 사람들은 실력에 상관 없이 즐겁게 공연을 하다보니
예술을 즐기는 거죠. 은혜공동체 오케스트라, 밝은누리 풍물단 등이
전국 각지에서 공연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실력을 보고 충분치
않다 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들은 떼떽하고 즐겁게 공연을 해요. 그
과정에서 치유가 된다는 거죠. 배우고 즐기는 과정에서. 공동체에

모여서 사는 사람들을 특별한 사람이라 보는데 심층 인터뷰를 하면 오히려 인간관계에 문제를 느끼는 사람도 많아요. 오히려 외로우니 그것을 깨려는 욕구를 가지고 함께 살려고 하는 노력의 과정에서 풀어지는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김찬호 현대인들 대부분이 무기력하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데, 앞서 말씀하신 공동체 내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에너지를 확인하고 살아나는 동기가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누군지 모른채 살아가다가 공동체를 통해서 치유가 되는 것 아닐까요.

조현 은혜공동체 같은 경우 보면 한 사람이 대부분 4-5개의 악기를 다뤄요. 그 아이들은 공부를 못해도 여러 곳에 소속되면서 거기에서 자존감을 확인하는 거예요.

박은선 사실 공동체가 이합집산이 잘될 때 자유로운 그런게 있잖아요. 그 곳에서 노하우를 빌려와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 서울예술치유허브에서 청소년들이 예술치유를 상시 경험할 수 있는 ‘아지트’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곳이 사랑방의 역할을 하고 싶는데 잘 안 돼요. 아이들이 가보고 싶은 곳이 왜 잘 안 만들어질까요?

조현 욕구가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아닐까요. 사랑방이라 하면 집이 좋거나 음식이 있다기보다는 편안해서 틈만 나면 모이게 되는 곳이어야 하거든요.

김수현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는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위기가 잘 형성되어 있어요. 창작할 수 있는 재료들이 비치되어 있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가지고 놀고 드나들 수 있는 곳이죠. 서울예술치유허브는 공간이 주는 느낌이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의 마루 같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제환정 ‘사회적 예술치유 랩’에 참여한 기관 아이들이 예술가 선생님들을 계속 만나고 싶어 했어요. 예술가들은 개인 연락처를 주기 모호한 상황이라, 그런데 오피셜하게 아니면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없으니까. 서울예술치유허브라는 공간에 오면 항상 예술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다라든가, 아이들에게 추가적인 안내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박은선 관여하는 경험이 촉발성을 불러일으킨다면 그다음에 일상성을 가져가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울예술치유허브의 이름처럼 ‘허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보면, 참여자들에게 이건 치유가 목적인 활동이니까 아무렇게나 그리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그래도 잘 그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술적인 활동 안에서 미적 가치를 느끼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김수현 너무 기능교육을 폄하할 필요는 없는 거죠.

박은선 허브가 치료 쪽의 전문성만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배우면서 성취감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미적체험을 기반으로 한 참여자들의 다양한 반응까지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수현 ‘공동체로 살아가기’에서는 최선영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공동체 안에 예술가들이 있고 삶의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낫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견하는 게 이질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동체 구성원들이 수월성 있는 예술을 배우고 싶다면 전문강사를 파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조현 서울시에 저층 주거사업단이라고 있어요. 서울시 내 가입된 마을이 30-40개인데 그쪽은 대부분 교육수준이

높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예술활동에 대한 자발성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풍물악기 정도는 사람들이 다룰 수 있지만 합창이나 오케스트라 쪽으로도 연계해서 예술강사를 파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50

4차 콜로키움 사회적 트라우마와 예술치유

151

제환정 4차 콜로키움에서는 치유에서 트라우마까지 전면에 내세운 게 핵심적인 것 같고요. 권승희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자원’이라는 게 예술가가 개입할 가능성을 잘 설명해주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기존에 존재하는 그룹이나 집단으로 예술가가 파견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는데 개인의 자원은 기관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고주영 선생님께서는 세월호를 이야기하셨는데, 국가기관의 폭력이나 트라우마에 대해 시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용기에 대해서 예술가들이 고민할 수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용기있는 개인이 총대를 메기를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질문도 들었습니다. 예술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용기있는 개인 예술가를 성장시킬 것인가, 침묵하지 않는 개인을 어떻게 지속해서 지원할 것인가 등을 생각해야 할 타이밍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은정 선생님 같은 경우 치유를 하려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술 작업의 확장인데 하다 보니 이것이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었던 사례였죠. 일상적, 일시적으로 누구나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예방까지는 아니더라도 필요하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이 수월한 서울예술치유허브가 되면 좋겠다. 예술가들의 역할 확장이지만 이게 필요해라고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에게 확장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형태의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박은선 저도 세대가 세대인지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 과격해지는 기억이 많아서. 하지만 사회적 이슈나 트라우마에 대해 예술로 접근해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할 거예요. 내전이 있거나 사회적 갈등이 심한 사회에서

예술이 그나마 그들을 결속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트라우마에 대한 예민성을 갖출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봐요.

김수현 내년에는 사회적 트라우마 관련 예산을 청년예술단 사업으로 받았어요. 39세까지의 청년이 주체이고, 청년들이 겪거나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문제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이런 것을 하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기획사업 형태로 해서 예술가들과 같이 사회적 이슈 관련한 치유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시작은 청년으로 하지만 내후년에는 그것을 벗어나서 확대된 형태로 하면 어떨지 고민 중이에요.

박은선 우리가 무엇을 사회적 이슈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연구부터 해야 해요. 한 가지 이슈가 사회 안에서 해결되기 쉽지 않은데 그것만으로도 몇 년을 해도 되는 거죠. 연구주제는 사건이 될 수도, 개념이 될 수도 있어요. 개인적 자원에 관해 이야기 했지만 개인적 자원을 만드는 단위가 그룹일 수도 있잖아요? 나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구나 하는 교정적 체험일 수도 있어요. 퍼실리테이터가 보여주는 모델링도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를 다루거나 사람을 사귀는 방식. 그런 것들을 그룹 단위로 했을 때 긍정적으로 전이되는 것이 있어요.

신동석 콜로키움의 2, 4차 주제를 기반으로 허브의 방향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4차에 대해서는 고민이 상당히 많아요. 기존의 프로그램 지원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자면 예술가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기획사업 형태로 가져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까지는 콘텐츠를 제공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플랫폼의 형태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해요.

152

153

제환정 영국의 테이트 모던의 “Tate Exchange”는 갤러리 오픈 시간동안 한 층의 예술적 공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합니다. 본인이 예술가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나 이곳에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어요. 아무도 검열하거나 확인하지 않아요. 인증에 의해 예술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예술이 갖는 가치는 뭘까라는 공간이 주는 가치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그냥 엄청난 자산을 일반에게 공개하고 아무 대가나 확인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하는 가치 지향이다, 라는 것 자체가 좋아요. 서울예술치유허브도 가치지향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간을 열어둔다면 그런 것도 구심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박은선 사회적 이슈로는 어떤 주제가 중요할까요?

김찬호 요즘 제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갑질 아닐까요. 군대에서 모욕감을 느껴서 자살하는 예도 많죠. 요즘 노키즈 존도 있죠. 겨울왕국도 아이들 없는 상영관을 요구하는데, 나중에는 아저씨, 아줌마 없는 곳도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서로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 존재밖에 모르고.

박은선 역치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다 더 나가면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저는 분노 일부가 자기표현을 개방적으로 하지 않는 데서 온다고 생각해요. 저는 표현을 할 때 억압된 것에 관한 이야기하는 것을 독려해요.

김찬호 한 직장에서 연수하는데 동그랗게 앉아서 무대가 있고 거기에서 핀 조명이 떨어지고, 둘이서 주고받는 내용이 직장 안에 있었던 내용을 싸이코드라마 하듯이 객관화하여 보여주고 직원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아는 거죠. 마지막에 사장이 ‘다 내 책임이다’라고 사과를 해요. 갑질 발언 같은 걸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거리 두기가 안 되잖아요.

박은선 장은정, 고주영 선생님의 경우 예술가들이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심리학 같은 경우 스터디 모임 등으로 지속해서 할 수 있게 하고 이분들 하고는 접촉을 늘려서 멘토 컨설팅트식으로 하고 8회기보다 훨씬 많은 게 필요해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동안 사업할 때 좋은 사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용 사례를 보여주고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런데도 하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하면 이 사람들이 시니어가 되는 거잖아요? 이들을 예민한 치유대상 그룹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중간 지도자가 되어서 나머지 사람들을 컨설팅해요. 그게 선순환 체계처럼 되어야 하지 않나요. 전 현 입주작가 대상으로 먼저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기획·운영	서울문화재단 공간기획2팀 김수현 팀장, 신동석 서울예술치유허브 매니저, 이은미 대리, 이재화 코디네이터
콜로키움 기획의원	김찬호(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초빙교수) 박은선(명지대학교 예술심리치료학과 교수) 제환정(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객원교수) 조 현(한겨레신문사 기자) 백승우(서울문화재단 공간기획본부장)
발행처	서울문화재단
발행인	김종휘
발행일	2019년 12월
편집	허영균(1도씨)
디자인	이예연(이웅셋)

